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7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차례

- 3p **북정동 사람들**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조영옥
- 7p **한옥의 보존과 활용, 그 가치를 높이자**
[특집] 성북동 한옥 / 글·사진 최호진
- 12p **한옥! 낯선 익숙함..**
[특집] 성북동 한옥 / 이준호
- 19p **한옥에 산다**
[특집] 성북동 한옥 / 정대환
- 23p **조지훈의 「절정(絶頂)」**
우리 동네 문학 살롱 / 박미산
- 33p **방우산장기(放牛山莊記) / 조지훈 시인 약력**
우리 동네 문학 살롱 / 편집부
- 40p **여유와 느림의 미학, 삼청각의 주련**
우리 동네 문화재 / 이준식
- 53p **현존하는 3대 요정, 삼청각을 찾아서**
성북동 문화재 답사기 / 박진하
- 66p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잡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성북동 마을여행 - 야생화 탐방기 / 글·사진 이파람

- 71p **꽃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신정화, DK
- 75p **벽 해는 밤**
성북동 문화 아지트 / 글·사진 최나현
- 81p **예술과 공간 그리고 이상과 현실**
성북동 문화 아지트 / 김민진 글, 선병수 그림
- 86p **야생화를 닮은 성북동 꽃집 언니**
주민 인터뷰 - 해동꽃농원 김은주 씨 / 김현주, 오예주
- 94p **28세 성북동 주민 오창민 씨의 세 번째 누리마실**
주민 기고 / 오창민
- 99p **약속을 짊어드립니다 - 우리동內 사진관**
[특집] 대학과 지역사회의 만남 / 이현정
- 108p **보리소골에서의 춘야 소회**
성북동천 회원 이야기 / 박진하 글, 김철우 그림
- 114p **거인소년 모래 이야기**
책 소개 & 서평 / 이민우
- 120p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회원 모집 / 편집부
- 121p **마지막 이후의 잡지를 펴내며**
편집 후기 / 편집부

북정동 사람들

조영옥



만해의 심우장 보고
만감 어려 나서는데
낡은 담벼락 한귀통이
아름다운 북정마을
안 보면 후회한다고
꼬득꼬득 꼬드기는 말
내려가려던 발걸음은
취한 듯 고불고불 계단 길 올라간다.
좁다란 골목길 이쪽저쪽 벽에는
재개발 반대 벽보와 낙서
재개발 하겠다는 죽일 놈들 이름이
서툰 손글씨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살벌한 길 비집고 오르는 그 끝
성북동 비둘기가
인사를 한다
언제 화내고 그랬냐는 듯
누덕누덕 북정 카페 앞 노천 탁자에는
구수한 일상이 소주병과 텅군다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숨 찬
두 노인



서울 도성 성곽 아래
 높다랗게 앉은 북정마을
 재개발과 발전의 달콤한 유혹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 한다
 아름다운 마을이
 어디 있어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름다운 게지
 지붕은 꼭 꺼져 있어도
 마음은 비둘기
 하늘을 날지
 내려가는 큰 길 양쪽
 싹틔줄처럼 퍼져있는 골목길
 꿈틀꿈틀
 삶의 숨소리
 살아온 세월만큼 다진 듯
 밀어도 밀려나지 않을
 한발 더 내딛을
 힘찬
 북정동 사람들

-

조영옥 시인은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교직생활을 하던 중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되었다. 10년간 학교를 떠나 있다가 1998년 복직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였다. 올해 정년퇴직을 한 뒤 요즘은 그저 돌아다닐 생각뿐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들이 많아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다. 마음 놓고 돌아다니며 놀 수 있는 세상을 앞당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1990년 시집 『해직일기』 발간 후 『멀어지지 않으면 닿지도 않는다』, 『꽃의 황홀』, 『일만칠천 원』 등을 펴냈다.



[특집] 성북동 한옥

한옥의 보존과 활용, 그 가치를 높이자

글·사진 최호진

‘한옥’은 무엇일까.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양옥’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살던 모든 집이 ‘한옥’이었기에 특별히 따로 부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전후 복구와 개발 시기를 차례로 거치면서 다세대와 아파트가 대다수의 주거 형태로 전환된 이후 우리 ‘한옥’은 진화를 잠시 멈추었지만, 우리 전통 가치와 역사적인 의미를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한옥’에 대해 다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에도 ‘한옥’이 지어지고 있으며, 생활공간 내부에서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한옥의 디자인을 재현하고 있다.

1만3천여채의 한옥이 남아있다고 하는 서울특별시 내에, 종로구와 성북구에 많은 수의 한옥이 집중되어 있다. 2013년 발간된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보고서에 따르면, 성북구에는 35,795채의 건물이 있고, 전수조사를 통해 목구조와 한식기와, 목재 서까래가 존재하는 것을 한옥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확인된 한옥이 1,618채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성북동(법정동)에 있는 한옥은 210개로 보고 되었다. (2013년 11월 기준)

개별 한옥에 대한 분포와는 별도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성북동과 성북동1가 일대에 201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 한옥 전수조사와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2014년 12월, 한양도성 외부에서는 최초로 성북동1가 105-11 주변(앵두마을 일대)와 성북동 62-17 주변(선잠단지 일대)를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여, 한옥개보수 및 신축 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성북동에는 많은 문화재와 서울시 미래유산 및 문화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다. 성락원 송석정, 이종석 별장, 마포 최사영 고택, 최순우 가옥, 만해 한용운 심우장, 상허 이태준 가옥, 길상사, 정법사, 삼청각, 한국가구박물관 등을 통해 우리는 성북동에서 쉽게 한옥을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성북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법제도를 통하여 문화재와 관련 시설들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한옥이 밀집된 지역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옥의 유지 관리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 외에는 멸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북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성북구 내의 개별한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서울시의 지원에 비해 그 금액이 낮아 일반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축과 개보수 비용이 높은 한옥을 등록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재정 지원을 통한 소유주의 자발적인 보존을 유도하기는 아직도 제반 여건들이 부족하다.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성북동에서 멸실된 한옥이 필자가 직접 확



[사진 1] 서울시 지정 한옥밀집지역 내 멸실된 한옥

인한 것만 해도 다섯 개가 넘는다. 사라진 한옥은 대부분 지하철역과 가깝고, 상권이 형성된 대로변과 바로 뒷골목에 집중되어 있다. 변형되고 노후된 한옥도 있었지만 비교적 잘 사용하고 있었고, 성북동을 오가며 길에서 익숙하게 봐오던 한옥들이어서 아쉬움이 더 크다.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이 공공의 경관적 가치보다는 우선순위에 놓여있다. 누군가의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한옥과 경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상승과 한옥이라는 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야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부동산 가치가 도시와 건축에서 인식하는 한옥에 대한 가치보다 훨씬 높다.

한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향상과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정비계획들이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고 발표되면, 가장 빨리 멸실 대상 목록에 올려지는 것이 한옥이다. 성북동



[사진 2] 상업과 주거가 혼용된 긴 필지 내에 멸실된 한옥

에는 이미 사라진 한옥 외에도 철거가 예정된 한옥이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면에 잘 고친 한옥을 사무공간으로 쓰는 곳도 생겨났고, 한옥 일부를 고친 후 좋은 용도를 찾고 있는 분도 있으며, 그 뼈대를 드러낸 채 새 옷을 기다리고 있는 한옥도 있다.

성북구 외에서는 한옥을 옮겨서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한옥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한옥 유치원도 등장했고,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한옥에서 나온 오래된 자재들을 수습, 보관하여 재활용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한옥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좀 더 많은 예산 확보와 홍보를 통해 다양한 용도의 한옥 신축과 개보수 사례를 만들어, 시민 생활 가까이에서부터 한옥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로변 공공시설도 천편일률적인 파고라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기보다 전통 방식으로 정자를 짓는 것은 어떨까? 사라지는 한옥의 한 두 칸만 옮겨와도 정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진 3] 성북동 골목에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한옥

적 디자인을 가미하여, 지하철역 입구를 한식 목구조의 지붕을 씌우는 것도 좋겠다.

역사문화지구를 천명한 성북동에는 문화재 뿐 아니라 많은 주거용, 상업용 한옥들이 남아있다. 성북동의 한옥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밀집된 공공 성격의 중요한 역사 경관 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문]

- 최호진은 연구활동집단 '지음(知音)'의 대표이다. 13년 넘게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과 도시, 지역 연구 조사, 한옥 및 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성북동친의 창립부터 함께 하여 현재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역사문화자원 심층조사 등 성북에 많은 애정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옥! 낯선 익숙함..

이준호

2000년대 초반, 도심에 남아있는 한옥들이 갑작스레 주목받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전통주거 양식을 보존한다는 거창한 이유를 댔지만, 본질적으로는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에서 우리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선사해 주는 한옥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이 주목을 받은 것일 테다. 거기에 더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에서도 우리 고유의 것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 비록 삶의 편의를 위해서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 도심의 한옥도 우리의 전통주거 양식으로 보존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제 삼청동과 북촌의 한옥은 집주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새로이 지을 수 없다. 한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편의나 보존의 대상으로서의 한옥이냐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있기도 했으나, 어느 한 쪽으로도 결론을 내기 어려운 숙제인 것은 여전하다.

한옥은 집이다. 철과 콘크리트, 유리 등이 없던 시절에 우리 주변에서 나는 재료들을 이용해 지었던 집이다. 집은 사람의 삶이 담겨지는 공간이고, 그 시대를 아우르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들이 공간으로서 구현되는 곳이다. 편안하고 편리한 공간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옥은 불편하다. 정확히 말하면 현대인의 삶을 담아내기에는 불편한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한옥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단순한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공간을 구현해 내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차치하고 보면, 한옥이라는 공간이 가진 철학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철학과 접점이 많지 않을 듯할 뿐이다. 그런 ‘불편한 옛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물론 불편해서 어찌어찌 처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한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집으로서 한옥의 불편함을 개선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 공간으로서의 한옥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일단 우리가 봐왔던 도시와는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손으로 다듬어 크기가 제각각일 것 같은 주춧돌과 반듯한 직사각형으로 재단하지 않은 나무기둥, 통나무를 그대로 얹어 나무 자체의 구불구불한 선이 드러나 있는 서까래, 역시 규격품이라고 볼 수 없는 대청마루 등은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사물들이 그러하듯, 공장에서 규격화되어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재단되는 데서 말미암은 획일적이고 메마른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마치 ‘도시가 답답하고 삭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모든 것들이 규격화되고 너무 정확한 선들로 정제되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한옥은 여럿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기둥, 주춧돌, 기둥 사이의 간격 등이 정밀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고 제각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지 각자가 자리하고 있는 땅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형식적이고 장식적인 과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모더니즘의 개념인 기능 위주의 잣대를 들이대면 한옥은 근대적이지 않은 건축으로 분류되기 십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지붕을 지탱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기둥, 보, 서까래로 이루어진

구조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기둥 위에 올려진 공포와 지붕의 처마선, 나무 고유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 자연스러운 곡선은 우리 건축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으로 자리매김 했다. 기능을 위해 장식을 포기했던 서구와는 달리 기능에 미를 더하고, 미에 기능을 접목시켰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한다.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불편한 한옥들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선조들이 한옥을 통해서 남겨놓은 유산은 우리 의식 어딘가에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일제 강점기에 전통건축과 현대건축 사이의 맥이 끊겼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위의 예에서 보듯이 어떤 사회 전반을 차지했던 문화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질과 왜곡의 과정을 거쳤을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끊임없이 단절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무 자르듯 잘려 나가는 것은 아니다. 한옥도 마찬가지이다.

일제시대, 제각각이던 집의 규모와 그 집들로 인해 생긴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통제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이 들어서는 땅을 정리해둘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직선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일정한 크기의 땅이 배치된 개발계획이었다. 결정적으로 한옥의 모든 요소가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크기였다. 하지만, 공간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이고, 그 상황에 적응하여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한옥이라 부르고 있는 도시형 한옥인 셈이다.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속도에 맞는 주거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옥을 짓는 방법이나 한옥의 구조 등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국내에 도입된 시멘트와 시멘트 벽돌이라는 재료는 집을 짓는 시

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다. 더 빨리, 더 많은 집을 보급하기를 원했던 정부의 정책과도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면서 시멘트 벽돌로 지어진 영단주택, 부영주택이 산업화 시기의 주요 보급형 주택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것도 이내 인구증가 속도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 주택 사업의 중심이 이동하기에 이른다.

이런 일련의 변화 속에서 한옥이라는 집의 외형은 급격하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의 공간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로 변화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과연 너무 앞서간 생각일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일제시대라는 불편한 시대를 건너뛰면서 (정확히는 부정하면서) 한옥을 위시한 전통건축의 보존을 부르짖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 이전에, 일제시대에도 한옥이 공간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전제를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살면서 한옥이라는 공간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접해본 사람보다 훨씬 많아졌지만 한옥에서 느끼는 편안함, 포근함, 익숙함 등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공감하는 일반적 정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한옥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내부 여기저기서 일고 있는 지금이, 일제강점기라는 외부적 요인으로부터의 위기에 비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성북동에서도 근 몇 달 사이에 네다섯 채의 한옥이 사라졌다. 참기 어려운 불편함과 더불어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씁쓸함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한옥이 지금 우리 사회 내부에서 생겨난 자발적인(?) 위기를 이



겨내기 위해서는 한옥에 사는 사람의 의지나 보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옥이라는 존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 ㉮

-
이준호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성북동에 자리한 건축그룹[tam]의 대표이다. 성북동천과 인연이 닿아 성북동에서 건축학교를 맡아 진행했고, 지금은 사무실도 함께 쓰고 있다. 성북동이 좋아 사무실도 냈지만 외근이 많아 정작 사무실에는 오래 머물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특집] 성북동 한옥 한옥에 산다

정대환

지금의 일터가 된 이곳, 성북동 한옥과의 인연은 학창시절 교과서에 서 읽었던 ‘성북동 비둘기’가 시작이었다. 따뜻한 느낌의 동네, 성북동이라는 예술마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이곳으로 들어올 전기가 마련되었다. 건축디자인을 업(業)으로 하는 나는 회사를 옮기기로 하였고, 나만의 조그마한 작업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많은 고민 끝에 성북동 한 모퉁이의 작은 한옥을 한 채 구입했다. 신축을 포함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동료들과 같이 협업하여 작업할 공간을 만들기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래서 옆집 한 채를 더 구입하여 두 채를 연결하고 한옥의 내부공간을 살리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디자인 작업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구입한 한옥은 그 집을 구성하는 부재들이 제법 근사했는데, 민가치고는 도리나 보 등이 튼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휘어진 부재들을 그대로 쓴 모양들이 좋아 보였다. 일제시대에 지어졌으니, 70년은 족히 넘는 세월 동안 서 있는 기둥들이다. 그 오랜 시간을 버텨온 힘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공간의 이런 성격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무척 고민하였다. 오래된 건물이라 도면을 구할 수가 없어서 수차례에 걸쳐 실측과 도면작업 반복을 통해 공간의 도면화 작업을 거쳐야 했으나, 현실 상

도면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부족한 부분은 시공 시 현장에서 대응하기로 하고 일단은 공사할 도면을 확정하였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축을 포함한 용도 변경 등 구청과의 협의와 인허가 과정이 필요했다. 성북구청과의 대관업무를 진행하고 12월 중순경 철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구옥에다 한옥인지라, 전문 한옥팀에게 철거를 의뢰하였다. 1차 벽체 철거를 통해 전체적인 현장의 상태가 확연히 드러났다. 보강 및 교체가 필요한 27개의 기둥과 9곳의 기초 교체, 회침골 등 누수 취약부분의 서까래 교체, 필요 없어진 굴뚝 부분의 보수, 합각과 풍판, 기와 등의 보수 등 2주 가량의 한옥 구조 보완을 통하여 오래된 건물을 안정화시켰다. 한옥의 운치와 장점을 위하여 지붕을 살린 반면,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바닥은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였다. 나머지 공사는 일반 인테리어 공사와 크게 다를 바 없었는데, 다만 기존의 변형된 목조부재들과 맞추어 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다. 설을 전후한 한겨울 날씨와 싸워가며 공사를 강행한 결과, 봄을 앞둔 2월 28일 입주식을 할 수 있었다.

약 3개월의 공사기간이었다. 비용도 수월찮게 들었으나, 따져 보니 비슷한 규모의 양옥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는 정도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입주한 사무실은 소담한 마당을 가운데 두고 작업 공간들이 둘러앉은 형태이다. 자연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오랜 세월을 품은 나무부재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인테리어가 된다. 인공 장식물로 만든 가짜 서까래가 아닌, 지붕을 받아주기 위한 필요로 만들어진 구조물 그 자체가 하나의 인테리어가 된 것이다. 목재와 흙으로 만들어진 천장 덕에 건조하거나 습할 일이 없다. 높고 아름다운 천장은 공간의 격을 높일 뿐 아니라, 기(氣)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



게 흐를 수 있도록 한다. 비 오는 날의 운치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다가올 겨울, 서까래 너머로 보게 될 눈 내리는 마당의 풍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 가눌 길이 없다.

* 한옥의 신축 및 보수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옥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길 권한다. 서울시는 전통 한옥의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한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는 한옥의 소유주가 요청하면 한옥 장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케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수리비 및 자재들도 지원하고 있어 매입과 수리, 거주 비용에 대한 고민 등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 또한 최근에는 법적 지원도 더해져서 지붕이나 기둥 등의 수리를 쉽게 할 수 있고, 바닥면적 측면에서도 처마 아래 공간을 반침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 ㉮

-
정대환은 티지티코리아디자인그룹(주)의 대표이다. 새로운 작업 공간을 찾다가 성북동 한옥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한옥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고 소중한 터전이 되길 바라는 건축가이다.

우리 동네 문학 살롱 조지훈의 「절정(絶頂)」

박미산

조지훈(1920~1968)은 시인이며 학자인 동시에 논객이며 지사다. 그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운 뒤 보통학교 3년을 수학하고 1938년 혜화전문학교 문과를 입학하여 1941년 21세에 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혜화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1939년 4월 『문장(文章)』지에 시 「고풍의상(古風衣裳)」이 정지용에 의해 초회 추천되고, 이어서 같은 해 11월 「승무(僧舞)」, 1940년에 「봉황수(鳳凰愁)」, 「향문(香紋)」을 발표함으로써 추천이 완료되었다. 조지훈은 이후 고전적 풍물을 소재로 하여 우아하고 섬세하게 민족정서를 노래한 시풍으로 기대를 모았고, 박목월(朴木月), 박두진(朴斗鎭)과 더불어 공동으로 『청록집』(1946)을 간행하여 이들과 함께 “청록파”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청록집(靑鹿集)』(1946), 『폴잎 斷章』(1952), 『조지훈시선(趙芝薰詩選)』(1958)의 작품들과 『역사 앞에서』(1959), 『여운(餘韻)』(1964)과 수상록 『창에 기대어』(1956), 시론집 『시의 원리』(1953), 수필집 『시와 인생』(1959), 번역서 『채근담(菜根譚)』(1959), 수상집 『지조론』(1962), 『한국문화사대계(韓國文化史大系)』등을 기획했다. 이처럼 조지훈은 시와 에세이, 시론집, 번역서, 논저 등 전방위 문사였다.

그의 문학적 체험은 9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대 풍미하던 프로문학의 영향을 받아 처음으로 동요를 지어 본 것이 문학의 첫 경험이었다.

었다. 그는 당시 정규과정인 일제교육을 받지 않고 서당에서 한학, 조선어, 수신, 역사 등을 배우며 선비정신과 학자적 탐구정신을 습득해 나갔다. 그러나 일찍이 문학적 재질의 싹을 보였던 까닭에 지훈에게 한학을 가르치던 조부 조인석은 ‘너는 문인으로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보에 의하면 시를 본격적으로 습작하기 시작한 것은 16세부터이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려서부터 시가(詩歌)를 들려주던 아버지와 큰형 세립(본명 조동진)이었다. 자전적인 글 「나의 역정」을 통해 그는 자신의 세 살 위인 만형 세립이 ‘문학의 싹을 길러준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지훈과 함께 주곡동 마을의 문집 「꽃담」을 펴내기도 하고 소년회를 조직하기도 한 형은 지훈의 문학적 재질을 일깨워 주었으나 21세에 요절했다.

지훈은 17세 때 서울로 올라와 동향 시인인 오일도가 주재하던 ‘시원사(詩苑社)’에 머물면서 시 습작을 계속했고 20세가 되는 1939년에 혜화 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다. 지훈은 1939년 「문장」에 「고풍의상」이, 그 다음해에 「봉황수», 「향문」 등이 2차 추천됨으로써 시단에 등장했다. 지훈의 시를 추천해 준 사람은 정지용인데, 정지용은 조지훈이 서구 취향의 시인보다는 ‘위축된 정신이나마 조선의 자연풍토와 조선인적 서정과 최후로 언어 문자를 고수하는’ 전통지향의 시인이 될 것을 권고한 시인이다. 지훈이 시적 방향을 정하는데 그의 추천과 권고가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지적된 바 있다.

지훈의 데뷔작 「고풍의상」은 지훈이 ‘서구 시를 모방하던 그때까지의 습작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시를 정립하려고 한 첫 작품’(「나의 역정」)이라고 밝힌 만큼 그의 시력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다.

지훈의 삶과 시에 가장 큰 분기점을 마련해 준 때는 혜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1년 3월 오대산 월정사로 내려가서 외전강사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는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병을 얻어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산사생활을 통해 조지훈은 시선일여(詩禪一如)의 시 정신을 깨우치게 되며 시인으로서의 확고한 작품 세계를 굳히게 된다. 그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것은 동양적 자연의 세계였다.

「산방(山房)」, 「산1」, 「산2」, 「유곡(幽谷)」 등의 시편은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 이 시들을 보면 당시 지훈의 눈에 비친 동양적 자연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조부 밑에서 정통 한문 교육을 받고 성장한 만큼 지훈의 한시적 교양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자연표상을 통해 인생의 존재론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조지훈 시가 서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통 시를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훈이 자연의 세계에 머무르기엔 나라 안팎의 정세가 너무나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는 ‘암흑기’라고 불리는 일제의 탄압이 가장 극악했던 시절이었다. 조지훈은 황국신민화 정책의 비보 속에서 「문장」지 폐간호를 받는가 하면 월정사 서실마저 수색 당한다. 그는 통음의 시간을 보내다 졸도하는 일까지 있었다. 오대산에서 내려와 요양 차 서울에 상경한 이후 3년간은 방랑과 절망의 시기였다. 경주에 있는 목월을 만나러 가거나, 친구들을 방문하면서 암울한 마음을 달래던 그는 1943년 가을에 주곡동으로 낙향해 버리고 만다. 대부분의 문인들이 ‘조선문인보국회’라는 친일문학 단체에 가담한 상황에서 그 역시 친일단체의 입회를 강요받았으나, 그는 붓을 쥐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나중에 「지조론」이라는 글을 쓸 만큼, 변절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졌던 그가 불의에 순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해방과 함께 그는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교육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였다. 해화 전문학교, 경기 여고, 서울여의대, 동국대학을 거쳐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시인으로서 창작도 활발히 할 뿐 아니라 유치환, 김동리, 박두진, 서정주, 조연현 등과 함께 순수문학을 옹호하고 민족문단을 건설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해방 후 어느 날 오는 날 밤에 청록과 세 사람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은 성북동 지훈의 집(성북구 성북동 60번지 44호)에서 시 원고를 뽑았고 거기에 목월이 「청록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박두진이 근무하던 을유문화사에서 이를 시집으로 발간하였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문장」을 통해 등단한 시인이었고, 후일 청록집이 세 시인 모두의 시적 고향이 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자못 뜻 깊은 일이었다.

문인으로서의 지훈에게 50년대는 가장 화려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6·25전쟁으로 조부와 부친(납북된 후 소식이 끊김)과 어머니, 그리고 아우까지 잃은 참혹한 시기이기도 했다. 피난지에서 중군 작가단을 결성하여 중군한 그는 강한 휴머니즘의 태도와 반공의식, 자유와 정의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갖게 된다. 전쟁시의 명편 중의 하나로 꼽히는 「다부원(多富院)에서」를 보면 잔혹한 전쟁을 통해 허망한 인간 상실과 파멸의 현장을 본 그의 비관적인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조지훈의 시 세계는 고전적인 정서와 시선일체의 초기 시 세계에서 해방 전후사와 전쟁, 그리고 4·19를 겪으며 점차 역사와 현실의 세계로 확대해간다. 고난과 충격의 시기 속에서도 시 창작을 중단하지 않은 그는 1952년 첫 개인시집인 『풀잎단장』을 발간하고, 이후 『조지훈 시선』, 『역사 앞에서』 등을 펴내며 개인적으로는 가장 화려한 문단시절을 보내게 된다. 시뿐 아니라 비평 활동도 활발하게 해나갔다. 특히

그가 쓴 『시의 원리』(53)는 현대시문학사상 최초의 정통 이론서로, 그의 문학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히는 저서이다.

말년의 그는 마지막 시집인 『여운』의 발간 외에는 학문적 탐구와 저술 활동에 더 힘을 기울였다. 60년대에 그가 펼친 저술활동은 실로 화려한 것이었다. 주요 저서의 목록만 봐도 『한국현대시사의 쟁점』(60), 『한국문학의 전통』(63), 『한국현대시문학사』(64), 『한국문화사서설』(64), 『한국문화사대계』 중 제1권 『민족 국가사』(64), 『신라가요연구논고』(64), 『한국민속학소사』(64), 『한국민족운동사』(63) 등 그 영역의 광활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민속학에 대한 관심도 깊어 196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무속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훈 시의 본령은 자연의 발견에 있다. 동양의 예술은 서양의 예술과 비교할 때 인생과 자연과 예술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는 반면에 서구적 관점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의 대상으로 본다. 자연을 대상화하고 인간과 대립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자연을 분리하여 보는 이원론적 관점이 서구적 관점이라면, 동양적인 관점은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일원론적 관점이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자연이란 단순히 물질적 현상계를 의미하지 않고, 인격화된 존재나 신적 존재, 또는 도나 진리의 구현체로 인식되었다. 단지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이 환기하는 생명의 리듬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자기 내부에 있는 생명의 리듬을 자연의 리듬에 일치시키는 것, 자연을 포함한 모든 삼라만상을 향해 깨어있고 열려있는 마음, 그리하여 인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유가·도가·불가를 막론하고 동아시아 사고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음은 도를 찾는 마음이며 집착을 버리고 속세를 초탈한 마음 즉,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자연관에 기초하여 검토해볼 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자연과 친화인 동시에 자연과의 교감이며 나아가서 자연과의 합일, 자연에의 회귀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심미적 상태에 다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나는 어느새 천길 낭떠러지에 서있었다 이 벼랑 끝에 구름속에 또 그리고 하늘가에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는 누가 피워 두었나 흐르는 물결이 바위에 부딪칠 때 튀어 오르는 물방울처럼 이내 공중에 사라져 버리고 말 그런 꽃잎이 아니었다

② 몇만 년을 울고 새운 별빛이기에 여기 한 송이 꽃으로 피단 말가 죄 지은 사람의 가슴에 솟아오르는 샘물이 눈가에 어리었다간 그만 불붙는 심장으로 염통속으로 스며들어 작은 그늘을 이루듯이 이 작은 꽃잎에 이렇게도 크낙한 그늘이 있을 줄은 몰랐다

③ 한점 그늘에 온 우주(宇宙)가 덮인다 잠자는 우주가 나의 한 방울 뿔속에 안긴다 바람도 없는 곳에 꽃잎은 바람을 일으킨다 바람을 부르는 것은 날 오라 손짓하는 것 아 여기 먼 곳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꽃나무 가지에 심장(心腸)이 찢린다. 무슨 야수(野獸)의 체취(體臭)와도 같이 전율(戰慄) 할 향기가 옮겨온다

④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한 송이 꽃에 영원(永遠)을 찾는다. 나는 또 철모르는 어린애도 아니었다 영원한 환상(幻想)을 위하여 절정(絶頂)의 꽃잎에 입맞추고 길이 잠들어버릴 자유(自由)를 포기(拋棄)한다.

⑤ 다시 산길을 내려온다. 조약돌은 모두 태양(太陽)을 호흡(呼吸)하

기 위하여 비수(匕首)처럼 빛나는데 내가 산길을 오를 때 쉬어가던 주막에는 옛 주인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 이마에 주름 살이 몇 개 더 늘었을 뿐이었다. 울타리에 복사꽃만 구름같이 피어 있었다 청댓잎 잎새마다 새로운 피가 돌아 산새는 그저 울고만 있었다.

⑥ 문득 한 마리 흰나비! 나비! 나비! 나를 잡지 말아다오. 나의 인생(人生)은 나비 날개의 가루처럼 가루와 함께 절명(絶命) 하기에 — 아 눈물에 젖은 한 마리 흰나비는 무엇이나 절정의 꽃잎을 가슴에 물들이고 사(邪)된 마음이 없이 죄 지은 참회(懺悔)에 내가 고요히 웃고 있었다.

- 「절정(絶頂)」 전문 -

「절정(絶頂)」은 시집 『풀잎단장』(1952년)에 실렸던 시이다. 이 시는 산꼭대기 낭떠러지에서부터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의 일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실경을 찾아 자신의 내면을 그린다. 곧 경험의 영역인 산을 내려오면서 화자는 자신의 내면 즉, 정을 표출하고 있다.

「절정」에서 화자는 꽃, 산새, 나비, 구름, 물방울 등 자연으로 자신을 형상화하여 외로움과 쓸쓸함, 슬픔을 그려내었다. 이것은 구체적인 어구에 의지하고 붙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어구가 있어야만 그 어구가 상징하고 암시하여 마음의 경계를 날을 수 있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상과 정서가 모두 여기에 체현되어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연과 완전하게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에서 현실의 자아와 객관대상 사이의 거리감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

은 자아가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순수무욕의 상태가 될 수 없었음을 말한다. 결국 ‘천길 낭떠러지’나 ‘주막집 주인’에 대한 경외심(숭고)만을 느끼고 합일할 수 없는 화자는 ‘잠들어버릴 자유를 포기’하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는 “참혹한 운명이라든가 과멸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와 같은 몰락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미”¹⁾를 보여준다.

1968년 5월 초순 경 가족의 생일날, 지훈은 꽤 긴 이 시를 가족들 앞에서 낭송하였다고 한다.²⁾ 지훈은 이 시를 가족들 앞에서 낭송한 지 1주일 후인 1968년 5월 17일 새벽 5시 40분 입원 중이던 메디컬 센터에서 기관지 확장으로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만 48세였고, 아직 세상을 뜨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다. 그는 30대에 절정 같은 ‘유언’ 시를 지었고 한 마리 흰 나비의 운명처럼 짧은 계절의 생애를 마치고, “절정의 꽃잎을 가슴에 물들이고 사(邪)된 마음이 없이” ‘절명’의 길을 갔다. 圖

-
박미산은 2006년 『유심』, 200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 『태양의 혀』(서정시학, 2014)을 냈다. 성북동에 살고 있으며, 성북동을 소재로 시를 쓰는 등 지역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인이다.

1) 조지훈, 앞의 책, 86쪽
2) <http://goo.gl/FdVEJa>

우리 동네 문학 살롱

방우산장기(放牛山莊記)

편집부

… (전략) 그럴싸한 현판 하나 걸 수 없는 그런 몰풍정(風情)한 집이었어도 아버지는 그 집에 ‘방우산장(放牛山莊)’이란 멋있는 이름을 선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셨다. 아버지의 ‘방우산장기(放牛山莊記)’를 소개한다.

“‘방우산장’은 내가 거쳐하고 있는 이른바 ‘나의 집’에다 스스로 붙인 집 이름이다.

집이란 물건은 고루거각(高樓巨閣)이든 용슬소옥(容膝小屋)이든지 본디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요, 떠메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매 집 이름도 특칭의 고유명사가 아닐 수 없으나, 나의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한 것이 아니고 보니 육척 수신장구(瘦身長驅)를 담아서 내가 그 안에 잠자고 일하며 먹고 생각하는 터전은 다 방우산장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산장이라 했으니 산 속에 있어야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로되 십 리 둘레에 일 점 산 없는 곳이 없고 보니 나의 방우산장은 심산(深山)에 있거나 시향(市巷)에 있거나를 가리지 않고 일여(一如)한 산장이다. 이는 내가 본디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

기르는 한 마리 소야 있든지 없든지 방우(放牛)라 부르는 것은 내

소, 남의 소를 가릴 것 없이 설핏한 저녁 햇살 아래 내가 올라타고 풀 피리를 희롱할 한 마리 소만 있으면 그 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아랑곳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집은 떠나지 못하지만 사람은 떠돌게 마련이다. 방우산장의 이름에 값할 집은 열 손을 넘어 뜰게 된다. 어떤 때는 따뜻한 친구의 집이 내 산장이 되었고, 어떤 때는 차운 여관의 일실(一室)이 내 산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나 그뿐인가. 피란 중군(從軍)의 즈음에는 야숙(野宿)의 담요 한 장이 내 산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라고 보면 취와(醉臥)의 경우에는 저 역조 성좌를 장식한 무변한 창공이 그대로 나의 산장이 될 법도 하지 않은가. 실상은 나를 바로 나이게 하는 내 영혼이 깃들인 고(庫)집, 이 나의 육신이 구극(究極)에는 나의 산장이기도 하다.

방우산장(放牛山莊)에는 아직 한 장의 현판(懸板)도 없다. 불행하게도 한 장의 현판을 걸었던들 방우산장은 이미 나의 집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요, 나의 형터리도 없는 집 이름은 몇 번이든지 바뀌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두려운 일은 곧 뒷날 내 죽은 뒤 어느 사람이 있어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노라는 제 정성으로 방우산장이란 묘석을 내 무덤에다 세워줄까 저어함이다.

그때는 이미 나의 방우산장은 이 지상에서는 소멸되고 저 지하의 한 이름 모를 나무뿌리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땅 위에 남겨 놓고 간 '영혼의 새'가 깃들이는 곳 — 그 무성한 숲의 어느 한 가지가 방우산장이 될 것이다.

나의 소는 어느 때든지 마침내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떠나고는 다시 오지 않는 새를 나는 사랑한다. 소가 죽어서 새가 되었다



낙화

조지훈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름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연 산이 다가서다.

춧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닫이가
우련 불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혀하오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소는 저 산새소리를 따라서 어디론가 뛰어간 것에 틀림없다. 낙엽이 날리는 산장을 쓸며 나는 소를 기다리지 않고 시를 쓰며 산다. 《신천지》, 1953)”

아버지가 당신의 거처에다 ‘방우산장’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신사(辛巳)년 곧 1941년 봄부터 오대산에 들어가 계셨을 때 “월정사(月精寺) 동향의 일실(一室)에 명명함으로써 비롯된 일”이라고 한다.

“학교를 갓나온 스물한 살짜리 애송이 청년이 세월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쫓겨간 곳이 오대산이요, 쓰일 곳 없는 세상이자 쓰이고 싶지도 않은 세월이더랬는데, 이 장발(長髮) 백의(白衣)의 가승(假僧)을 반갑게 맞아준 곳이 월정사 강원(講院)의 외전강사(外典講師)자리였다”고 하셨다.

하루 한두 시간을, 더우면 법당 앞 용금루(湧金樓) 다락에서, 추우면 강원 큰 온돌방에서 학인(學人)들을 가르치고 나면 아버지에게는 하실 일이 없었다. 빈방에 홀로 눈감고 벽에 기대이거나 먼지 앉은 경권(經卷)을 내어놓고 뒤적이지 않으면, 뜻 모를 생각에 잠겨 숲속이나 못가를 거니는 것이 일과였다.

“어린 중들과 함께 산나물을 뜯는 봄 한철, 머루와 솔잎과 당귀를 캐어 술 빚어 마시는 가을 한철, 소란한 세상이 괴롭고 아플수록 산거(山居)의 미(味)는 깊어갔다”고 하셨다. 그러다 《문장》지 폐간호를 받으셨다.

아버지는 이 방우산장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셨다. “실의(失意)의 청년은 이제 실신(失神)의 인(人)이 되었다. 방우산장 주

인 방우자(放牛子되)는 방우선(放牛禪)의 개조(開祖)가 되고 만 것이다”고 하셨다. “자꾸만 쓰러지려는 내 자신을 가누려는 혈투의 몸부림이었다”고 하셨다. (후략)

[출처] <승무의 긴 여운 지조의 큰 울림 : 아버지 조지훈-삶과 문학과 정신>, 조광렬 지음

편집부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본명은 조동탁(趙東卓)이다. 경상북도 영양에서 태어났다. 독학으로 중학 과정을 마치고서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여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39년《문장》지에 〈고풍의상〉과 〈승무〉를 추천받아 문단에 등장하였다. 광복 후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와 동국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1961년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 시인 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듬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장에 취임하면서 민족문화 개발에 주력하였다.

청록파의 한 사람으로 명시를 많이 남긴 조지훈의 시는 주로 자연, 무속, 선을 소재로 한 민족다운 색채가 짙고, 불교 세계를 향한 관심은 종교의식을 일깨워 작품에 반영되었다. 박목월과 박두진을 비롯한 다른 청록파 시인이 후에 시 세계를 근본으로 변혁했는데 조지훈은 초기 자연과 친화한 시 세계를 꽤 많이 유지하였다. 1956년 자유문학상을 받았다. 그 후로도 활발히 문학 활동을 하며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68년 5월 고혈압으로 토혈한 후 입원, 고혈압과 기관지확장증의 합병증으로 5월 17일 끝내 타계했다.

시집으로 《청록집》과 《조지훈 시선》이 있고 수필집 《창에 기대어》, 논문집 《한국 민족운동사》가 있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조지훈>



여유와 느림의 미학, 삼청각의 주련

이준식

성북동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는 예스러움과 고즈넉함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얼핏 떠오르는 게 서울 성곽, 간송미술관, 길상사, 심우장, 최순우 옛집, 이태원 생가의 수연산방... 그리고 삼청각이다. 기실 서울 성곽을 빼고 나면 그리 예스러울 게 없는 근현대의 유적이지만 어쨌든 성북동이라 하면 그런 이미지로 다가온다. 생활 리듬이 워낙 바빠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이다 보니 불과 백년도 채 지나지 않은 세월이건만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지는 탓인지 모르겠다.

그중에서도 삼청각의 역사가 가장 짧다. 기록을 보니 삼청각이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온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 만찬 행사를 위해 지어졌다고 하니, 그 역사가 40년 남짓이다. 이런 삼청각으로부터 예스러운 인상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선 그 궁궐에 버금가는 한옥의 웅대한 규모 때문일 터이고, 그에 더하여 주건물 일화당(一畝堂)을 비롯하여 청천당, 천추당 등 주변 건물의 기둥에 붙은 주련(柱聯)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주련은 문자 그대로 기둥에 붙여 놓은 글씨, 주로 한시 대련(對聯)인데 궁궐이나 사대부가, 대형 사찰의 기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자 특유의 조형미를 한껏 살리려는 취지였다 건물주의 정서적 취향이 나, 상서(祥瑞), 다복 등 갖은 바람을 담은 미사여구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한자, 특히 그중에서도 한시나 한문이 우리생활에서 아득히 멀어져버린 요즘 세대에게는 주련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새겨볼 능력도, 관심도 별반 없는 게 사실이다. 그저 한자로 된 문장이 기둥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시각적으로 좀 고상해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주련을 붙이는 것은 원래 고대 중국 당송(唐宋) 사이에 존재했던 오대(五代) 때부터 비롯된 풍속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중국에서는 웬만한 저택부터 작은 가게에 이르기까지 어렵지 않게 주련을 찾아볼 수 있다. 격에 맞지 않는 경우를 빗대는 말로 ‘가게 기둥에 입춘’이라는 속담이 있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이니 건양다경(建陽多慶)이니 하는 주련이, 조출한 집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겠다. 하지만 적어도 중국에서는 작은 가게일지라도 주련을 붙여두는 사례를 곧잘 볼 수 있다. 이는 그것을 붙이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이 두루 부담 없이 잘 받아들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주련 문화가 한족 전통문화의 정수임을 인정하여,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까지 해놓았다. 중국어로는 주련보다는 영련(楹聯), 대련(對聯), 춘련(春聯)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의미나 기능은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우리의 경우, 특별한 소양이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주련 문화에 익숙해지기는 어렵다. 우선 문자 해독이 쉽지 않은 데다 내용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상황과 일정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이 각박하게 돌아가기에 현대인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여유와 휴식이 아닐까. 주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거나 심리적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들이 많다. ‘느림의 미학’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생활의 리듬을 한 박자 늦추어가면서 유희자적의 시간을 갖자는 의미이다.

최근 서울 한강변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내용을 보니 좀 별스러웠다. 대회 규칙에는 잡담, 휴대폰 사용, 춤이나 노래, 독서 등을 금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까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다. 한 마디로 아무 짓 안하고 멍 때리는 것으로 평소에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자는 의도였다. 온갖 경쟁과 욕망으로부터 자신의 뇌와 마음을 최대한 해방시키자는 게임이었다.

궁궐, 사찰, 기념관, 전통 한옥 등에 붙은 주련을 대하는 우리의 심사도 아마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종의 ‘느림의 미학’이자 ‘멍 때리기’의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자, 한문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자기가 아는 한자나 찾아보면 되고, 전서와 해서, 혹은 초서로 된 한자의 조형미에서 위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삼청각에 붙은 주련도 바로 이런 ‘느림’과 ‘멍 때리기’를 통한 여유 찾기의 일환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뜻밖에도 얻어 걸린 별미처럼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삼청각은 주 건물 일화당을 비롯하여 각기 규모가 다른 청천당(聽泉堂), 천추당(千秋堂), 취한당(翠寒堂), 동백헌(東白軒) 등이 있고, 각 건물의 기둥마다 주련들이 사방으로 돌아가며 뻗뻗이 붙여져 있다. 삼청각 전체의 주련 수가 열추 보아도 일백 폭 정도는 되어 보인다. 아마 마음먹고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보려면 며칠은 족히 걸릴 듯하다. 하긴 그걸 일일이 살피는 작업이 곧 스트레스일 터이니, 그것은 주련을 붙인 본래의 의도에도 어긋날지도 모르겠다. 때론 멀찍이서 단아하면서도 기세 찬 서체를 즐기고, 때론 가까이 다가가서 애써 뜻을 새겨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고맙게도 삼청각 각 건물의 모든 주련 아래에는 한글과 영어 풀이가 붙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라치면 어려울 것 없이 그 뜻을 알 수 있다. 눈 가는대로 서체를 즐기면서 임의롭게 뜻을 되짚어볼 수 있게 한 배려가 돋보인다. 서예가 초정(艸丁) 권창륜(權昌倫) 선생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앞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삼청각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은 정채에 해당하는 일화당이다. 일화당의 인상적인 부분은 지붕, 웅대한 위용을 가진 지붕이 건물을 만나마 내리누르는 듯 앉아 있다. 이곳의 주련은 단출해서 다른 건물의 주련들이 다닥다닥 붙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건물 정면의 대련 한 폭이 금방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詩書禮樂乾坤大(시서예악건곤대)

日月星辰政教明(일월성신정교명)

그 아래에 새긴 한글 번역을 보니 “시서와 예악은 천지처럼 위대하고, 정치와 교화는 일월처럼 밝다”라고 되어 있다. ‘시서예악’은 유가의 경전, 그 내용이 심오하고 풍부하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래서 천지만큼 위대하다고 했다. 정치와 교화가 일월처럼 밝다는 말은 지금이 태평성대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말이다. 전체 내용이 다분히 정치적, 교훈적이어서 건물의 외양만큼이나 위압적인 느낌이 든다. 당초 일화당이 고위급 국빈을 맞이하는 용도로 건립되었다고 하니 이런 내용이 그런대로 어울릴 법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고급 음식점에 불과하니 이런 주련 내용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알 수 없다. 명(名)과 실(實)이 잘 합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한글 번역에서도 대련의 주요한 특징인 대칭성을 충분히 살린 것 같지는 않다. 이 주련에서는 ‘시서예악’과 ‘일월성신’이 짝을 이루고, ‘건곤’과 ‘정교’, 그

리고 ‘대’와 ‘명’이 각각 짝을 이룬다. “시서와 예악은 천지처럼 위대하고, 일월과 성신은 정교처럼 밝다”라고 해도 정치와 교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살아난다. 한자 대련의 운율미가 한글 번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어쨌거나 시원스레 써내려간 멋들어진 글씨에 아쉬우나마 만족하는 수밖에 없다.

일화당 앞쪽으로는 청천당(聽泉堂), 여긴 주련들이 기둥마다 뻗뻗하다.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일화당의 주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聽裏泉寒流如達(청리천한유여달)

望中山碧立如愚(망중산벽립여우)

“꺾전 울리는 맑은 여울 지나가고, 눈에 가득 푸른 산 우직스레 서 있다”고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보니 어딘가 시원스레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싶다. 일화당과는 달리 인적이 드물고 녹음도 우거져 한참을 여유롭게 들러볼 마음이 저절로 동한다. 대련의 운율을 살펴 “들리느니 차가운 샘물, 시원스레 흐르고/보이느니 푸르른 산, 우뚝하니 서 있다”로 굳이 바꾸어 되뇌어 본다. 눈길을 끄는 건 대련 속의 두 글자 ‘청(聽)’과 ‘천(泉)’이다. 청천당이라는 편액과 연관된다. 청천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시구를 붙였는지, 아니면 이 시구에 매력을 느낀 어떤 이가 그 이름을 거기서 찾아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또 이런 대련도 있다.

據德依仁游以藝(거덕의인유이예)

興詩立禮成于樂(흥시입례성우악)

“덕과 인에 의거하여 예에 노닐며, 시와 예에 흥기하여 악을 이룬다”고 번역되어 있다. 옛 선비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유가의 덕목을 기리면서, 경전 공부에 몰두하겠다는 주인의 마음을 담은 것 같다. 하지만 한글세대에게는 한참 설명을 보태야 할 만큼 낯설게 느껴질 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의 주련들이 몇 폭 더 있지만, 망념(妄念)을 잊으려면 그냥 눈으로 읽고 가는 게 상책이다. 억지로 머리로 읽을 것까지는 없다는 말이다. 대신, 한가로움과 여유를 찾기에는 정면에 붙은 대련이 제격이다.

永日鳴琴尋舊譜(영일명금심구보)

小窓分紙寫新題(소창분지사신제)

“긴긴날 거문고 통기며 옛 악보 뒤적이고/아늑한 창가에서 종이 갈라 새 글을 쓴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조선 시대 문인학자 서거정(徐居正)의 <장하(長夏)>에서 따온 시구이다. 원시를 읽어보니 그가 한직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자 긴 여름날 한가로이 소일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는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기까지 학자, 문인, 관리로서 술한 업적을 남겼는데, 음악과 시를 소일거리로 삼은 품이 고상하고 넉넉하다.

선비들의 이런 여유는 천추당(千秋堂)의 주련에도 예외가 없다.

快日晴窓閑試墨(쾌일청창한시묵)

寒泉古鼎自煎茶(한천고정자전차)

“쾌청한 창가에서 새 먹을 시험하기도 하고, 시원한 샘물 길어 옛 술에 차를 끓인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시인이 ‘새 먹을 시험해본 것’

인지 아니면, ‘한가로이 연습 삼아 글씨를 써본 것’인지는 명료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글씨를 쓰지는 않았나 보인다. 게다가 주인은 차가운 샘물을 길어 오래된 술에다 차를 끓인다. 주인이 차 끓이기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건, 차가 ‘저절로 [自]’ 끓는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쾌청한 날, 창으로 스미는 햇살을 받으면서 일필휘지, 붓글씨를 뽐내는 선비를 연상해본다. 차르르 차 끓는 소리까지 퍼지는 어느 아늑한 서재…。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에 쫓겨 이리 분주하게만 살아야 하는지!

취한당(翠寒堂)은 무슨 의미일까? 청천당, 천추당은 한자의 뜻만으로 그 의미를 짐작하겠건만 취한당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마침 놀러 나온 몇몇 중년 사내들이 ‘취한당, 취한당…’을 입으로 되뇌면서 고개를 가우뚱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중국 옛 선비들은 여름 피서를 위한 정자나 별채에 더러 ‘취한(翠寒)’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곤 했다. 여름의 녹음에서 ‘취(翠)’를 따서, 피서의 장소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붙인 이름인지도 모르겠다. 취한당에서 본 주련 가운데 한시의 특징적인 형식 하나가 눈에 띄었다.

古松流水三間屋(고송유수삼간옥)

皓首鳴琴百世人(호수명금백세인)

번역문은 “옛 소나무 흐르는 시냇물 오막살이집, 흰머리에 거문고 통기는 태고적 사람”으로 되어 있다. 특징적 형식이란 바로 두 구에 쓰인 단어들이 모두 명사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흔한 예는 아니다. 번역문은 명사의 특징을 다 살리지 않았는데, 시인은 “노송, 유수, 오막살이집/백발, 울리는 거문고, 나이든 사람”, 이 여섯 개 명사로만 시구를 지었다. 술어나 부사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묘하게 그 의미가

선연하게 들어온다. 예사 기교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동백헌(東白軒), 필자의 개인적 소견이지만 편액 이름만으로는 청천당이 인상적이고, 주련의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시구는 이곳에 있다.

牢籠歲月清樽裏(뇌롱세월청준리)

搬運江山素壁間(반운강산소벽간)

“세월은 술잔 속에 잡아 가두고 강산은 바람벽에 옮겨 놓았다”라고 번역해 놓았다. 고려 말 문인학자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시구에서 따온 말이다. 시인이 병으로 휴가를 얻은 뒤 사립문을 걸어 잠그고 여유틈게 지내던 정경을 표현한 부분이다. 세월이 흐른대도 나는 결국 내 술잔 속, 그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호기이자 느긋함이다. 시인은 서재의 하얀 벽에 산수화 한 폭 걸어두었을까? 강산을 옮겨다 놓았다는 표현에서 과장파도 같은 패기와 자신감, 나아가 선비의 여유로움을 발견한다.

주련은 문학이자 철학, 놀이이자 이야기, 문화이자 예술이다. 또한 주련은 건물의 장식물 같은 존재이다. 웬만큼 규모를 갖춘 한옥이라면 으레 붙어 있는 주련은 어쩌면 맛있는 요리 위에 올린 고명이나, 예쁘게 차려 입은 한복을 돋보이게 하는 노리개에 비유할 수 있다. 공들여 잘 지은 한옥에 주련이 빠지면 바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물론 음식에 고명이 빠진다고 해서 주재료의 맛이 결정적으로 손상될 리는 없고, 또 한복에 노리개가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흠결이라고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고명이나 노리개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주련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도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달래

고 머리를 식히려 삼청동, 삼청각을 찾았다면 우선 눈으로 주련이 주는 산뜻한 조형미부터 감상해보자. 성현들의 교훈이나 철학적 사색은 잠시 지나칠지라도 옛 선비들의 풍류나 기개, 여유와 느긋함은 혹시라도 공감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圖

이준식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국고전시가를 전공했다. 대학 박물관장, 현대중국연구소장, 한국중어중문학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양도성 서울성곽을 비롯하여 간송미술관, 길상사, 심우장, 우리 옛돌 박물관 등 성북동에 소재한 여러 유적과 명소를 탐방하면서, 그 아름다움과 매력을 전하는 일을 즐기고 있다.



성북동 문화재 답사기

현존하는 3대 요정, 삼청각을 찾아서

박진하

전날 성북동에서는 누리마실 축제가 있었다. 온 몸에 피곤이 젖어 일어서기 어려웠으나 어느새 또 다시 닥쳐온 원고 마감을 생각하며 막내딸의 연습장에서 메모할 노트 몇 장을 찢어 챙겨 삼청각 답사에 나섰다. 우리 아이의 연습장이란 것이 수학 문제를 풀던 것과 역사 시험을 위해 요약한 부분 등 여러 내용이 혼잡해 있고 중간 중간마다 여백이 많아 빈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메모지로 사용하기에 좋은 까닭이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삼청각을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가야 되느냐고 반문한다. 사실 그렇다. 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녀왔다. 그러나 막상 글을 쓰려 하니 확인해야 할 것도 많이 있었고 보다 세밀한 답사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른 새벽 7시에 출발했다.

삼청각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자동차로 가면서 바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메인 건물인 일화 정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경로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걸어서 솥을대문을 거쳐 들어가는 것이다. 삼청터널 가까이에 있는 이 대문은 대단히 화려하다. 일반적으로 궁궐이나 사찰 이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청 장식을 하고 있다. 담장이 둘러싸인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대문을 중심으로 굽어 들어가고

있다. 멀리서 보는 담장은 정말 예쁘다. 크고 작은 사각 석 위로 흑 벽돌과 적 벽돌을 이용해 길상무늬 장식을 하고 기와로 쌓아올려 덮개를 만들어 올렸다. 그 사이로 큰 대문이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이것이 걸작이다. 2개의 높은 고주와 또 다른 2개의 기둥을 지주로 한 솜을 대문인 것이다. 특이하게도 ‘헛기둥’이 앞뒤로 두 쌍이나 있다. 대들보 위로 짧은 기둥을 만들어 받치는 동자주는 보아왔지만 허공에 매어 달린 짧은 기둥은 처음 본다. 사실 이건 기둥이라기보다는 허공에 매달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중부담만 커지는 역효과만 있다. 건축공학적으로 보면 이건 그야말로 웃기는 일일 것이다. 어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어 가까이 가 보니 시멘트다. 그래서 이런 기괴한 대문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는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건물 안으로 객을 안내하고 있다. 왼편으로 담장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자연 정원이 펼쳐진다. 이 작은 동산 위로는 소나무, 단풍, 진달래, 쥐똥나무, 구상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동백나무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만 자라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이다.

그리고 이 삼청각은 산비탈 경사를 수평으로 깎아 평지를 만들고 그 지면 위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살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경사진 비탈길을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으로 자연석을 이용한 S자형 계단을 만난다. 그를 따라가다 보면 천추당이 보인다.

이 건물은 팔작지붕의 전통 기와집이다. 정면 6칸, 측면 3칸의 규모로 계단 5개 높이의 기단석 위에 지어진 것이다. 정면 출입문은 격자창과 거북이 등껍질 무늬를 활용한 복합 유리문이다. 그 위로 큰 통

유리가 있고 창방, 평방, 첨자 등이 있어 한옥다운 멋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 내부에는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홀이 있고, 그 중심으로 텃마루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다. 난간은 박쥐 무늬의 음각 풍혈과 연꽃 무늬의 하엽(荷葉)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정면 좌우로 오동나무 두 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는데 15년이면 크게 자란다. 그 나무로 딸이 시집갈 때 가구를 만들어 주기에 혼수 목(marriage tree)이라고 불렀다. 다시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서면 왼편으로 줄을 서서 나가는 사람을 배웅하는 쥐똥나무 군락을 만날 수 있다.

다시 조금 오르면 편운당(片雲堂) 쉼터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2층 누각으로 팔각 정자이다. 조각구름이라는 당호도 낭만적이지만 다른 이름인 유하정(幽霞亭)도 좋다. 즉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저녁 노을 풍광은 그윽해서 감상해 볼만하다는 의미 일게다. 1층은 내부시설로 거북 등껍질 무늬를 기본으로 한 장식 벽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는 2층 누각은 8각 정으로 앞 5면은 완(完)자형 유리창으로 되어있다. 한 면이 4개의 유리 창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밖으로 텃댄 이중 유리창은 통유리라 안쪽 창문을 열어 두었을 때 그 개방감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는 밖의 아름다운 풍치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만 그 내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를 확인할 수 없음이 아쉬웠다. 나머지 3면은 무대 뒤로 벽면처리를 했다. 정자 주위로 난간을 설치해 둘러 볼 수 있게 했는데, 난간과 바닥을 잇는 부분은 닭의 다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계자각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이다. 또 건축물 상부에 있는 화반이나 첨자 그리고 판벽 등도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다. 다만 색칠을 더해 멀리서 보면 목재처럼 보인다.



이 전망대 앞 도로를 건너면 취락문(聚樂門)이 눈에 들어온다. 이 문 좌우 담장 구석에는 조그마한 화단을 만들어 갖은 화초를 키우고 있다. 여염집 대문과는 달리 화려한 장식의 이 문을 지나면 잔디 위로 꾸불꾸불한 S자형 바닥석을 깔 보행로가 보인다. 본래의 목적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겠지만 그 유연한 것이 보기에도 좋았다. 그리고 그 소재도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회색 응회암으로 되어있기에 단아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이 길 왼편으로는 고운 담장을 배경으로 자연석을 이용한 작은 동산을 만들고 향나무, 진달래, 단풍 등을 심어 작은 숲을 조성해 두었다. 그 반대편으로는 담장 대신 여러 나무를 식재하여 다른 공간과 구분되도록 경계선 역할을 하도록 했다. 좌우가 대칭되도록 하는 것보다 이런 비대칭이 주는 변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한다.

이 공간의 주인공인 청천당(廳泉堂)은 출입문 2칸을 중심으로 좌측 2칸, 우측1칸을 배치하여 역시 이 또한 파격이다. 입구의 출입문은 너무 평범해서 편안하다. 지나친 장식이 너무 거슬려 보인다는데 이 당호의 창호는 너무나 서민적이다. 시골집에서 흔히 보던 그대로이다. 밖의 창호지 문은 거의 꾸밈없이 위 아래로 네 칸을 구분하여 위 3칸은 창호지로 아래 한 칸은 판재로 막아 버렸다. 보통 누워있으면 밖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창호지 밖으로 그 사람의 실루엣이 비쳐나가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중창으로 안으로 덧낸 방열창도 격자무늬의 유리 창문이다. 과한 장식과 지나친 치장이 졸부의 취향처럼 느껴지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처럼 평범함은 너무나 돋보이는 것이었다. 돌아 나오니 마당에 재미있는 장식이 보인다. 거의 탄성을 지를 뻔 했다. 응회암 조각을 이용해 작은 원형 모양으로 마당 장식을 한 것이다. 아마도 바닥 석을 깔고 남은 돌로 이런 모양을 만든 것 같다.

어느 것 하나도 같은 모양의 돌은 없다. 제각기 다른 돌 조각을 모아 모자이크 식으로 둥근 원형을 만들었다. 장인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남은 돌로 이런 것 하나는 남겨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어 이 삼청각의 주 건물인 일화당으로 걸음을 옮긴다. 대문 앞에 서니 마당 공사가 한창이다. 잔디를 심고 있는 것이다. 잔디를 까는 정원은 서양식이나, 우리 고유의 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으니 반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대형 건물의 담장은 정말 다양하다. 단순한 꽃잎 무늬 장식부터 길상무늬, 한자 기쁨 희(喜)자를 활용한 것과 거북 등 껍질(龜甲, 귀갑) 장식까지 총 출동했다. 상류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담장 장식을 모두 동원한 미담 박물관인 것이다.

그 맞은편으로 웅장한 ‘일화당(一畝堂)’이 서 있다. 가운데 한자가 음독도 안 되고 해석도 불가능하다. 집으로 와 두꺼운 한자 사전을 들추어 보고야 알게 되었다. 화할 화(和)자의 고어란다. 각 건물에 붙어 있는 편액이나 각 당호의 기둥에 걸린 주련의 서체가 예사 솜씨가 아닌 듯해서 삼청각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물었더니 친절하게 알려왔다. 특히 편액의 글씨는 전서체의 대가인 심당 김제인 선생의 작품이란다. 전서체라는 서체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쓰여 진 고체인 까닭에 글자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가 이 삼청각을 답사하는 재미중에 가장 으뜸은 당호와 주련을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우리 조상은 당신이 좋아하는 시구나 고전 문구를 집안 건물 내 기둥에 붙여두고 아침저녁으로 되새기곤 했다. 지나치게 많다 할 정도 많은 주련이 있는 장소가 삼청각이다. 주련과 당호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더불어 당호를 명명한 배경 시구를 주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왜 ‘일화당’이라는 당호를 만들었을까? 이 건물 후면에 있는 주련을 통해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 “백예 겸전 물아일(百藝 兼全 物我一)”과 “천음 교감 신인화(天音 交感 神人和)”이라는 2개의 주련이 그것이다. 앞 문구의 마지막 한자인 일자를, 뒤의 문구에서 화자를 차용해 일화당이라 명명한 것이다. 이는 예술의 경지가 지극해지면 듣는 자와 연주하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연의 소리와 음악이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게 되면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으리라.

이 건물은 정면 5칸에 양측 면으로 3칸씩을 덧붙인 대형 건축물이다. 정면 출입구 한 칸이 대형 유리창 4개로 구성되어 있고 독특하게도 여단이 방식으로 되어 있다. 다른 벽면은 커다란 사각 석 위에 적색과 회색 벽돌을 이용해 장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ㄷ’자 배치를 하고 있다. 주 건물을 중심에 두고 양측으로 두 개의 건물을 돌출형으로 붙여 두고 있다. 측면은 6칸일 정도로 대형이다. 목조 건물처럼 보이지만 앞선 것과 다름이 없이 이 모든 게 다 시멘트이다.

사실 이 건물을 보고 크게 실망한 적이 있다. 그래서 답사기 쓰는 것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다. 이 삼청각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72년 만들어져 74년 남북적십자 회담 만찬장으로 사용되었다. 모든 것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삼청각이라 명명한 것도 정치의 중심인 삼청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삼청터널도 일반의 편의 보다는 이 요정과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기존의 다른 요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만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일까? 비밀이 셀 수 없도록 완벽한 보안시설을 갖춘 비밀 요정이 필요해서 일까? 아님 다른 서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흥청망청 즐겨보자는 생각에서 이런 기발한 건물을 만든 것일까?

삼청각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당시 건설을 담당 한 사람들의 조급함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전통적인 건축기법이나 미적 장식 기술을 총동원한 건물이라기보다는 결만 모방한 열치기가 되었다. 그런 까닭에 이 삼청각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 가면 추해 보인다. 이는 E. A. 포우의 ‘안경’이라는 단편 소설을 연상케 한다. 소설 주인공은 시력이 매우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보기 좋하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오페라 하우스에서 멀리 있는 어떤 미모의 여성을 보고 반하게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첫눈에 반한 이 미모의 여인이 할머니이었던 것이다. 멀리서 보면 멋진 전통 한옥 건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콘크리트 흉물인 것이다. 사실 콘크리트라고 해서 나쁜 것은 없다. 콘크리트라는 소재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건물을 만들 수 있다. 일본의 천재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오히려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차갑지 않게, 또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건물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삼청각의 문제점은 이런 콘크리트 건물을 목조 건물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이 비밀 요정은 성북동에 건립되었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좋은 싫든 정리는 한번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다시 보고 살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은 대부분 주 건물인 일화당에 한정된 것이고 다른 건물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존하거나 답사할만한 가치를 찾게 된 것이다. 아니 멋지고 아름답



다운 면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지금이야 고백하지만, 슬쩍 보고 조금 하게 판단한 선입감으로 인해 가치 있는 여러 것들마저 놓칠 뻔 했다.

이 건물은 앞에서 보면 1층이지만 뒤쪽에서는 2층이다. 아마도 산의 경사면을 비탈진 곡면 그대로 놓아둔 채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화당을 뒤로 둔 채 담장과 내부 기계실 사이 길로 나아가면 비슷한 규모의 한옥 두 채가 나온다. ‘취한당’과 ‘동백헌’이다. 이 쌍둥이 한옥은 정원이 볼 만하다. 대개 우리 한옥의 정원은 대청마루에서 관찰해야 조성자의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취한당은 급경사를 이루며 내려간 평지 위에 건립되어 있다. 그러니 앞의 정원도 폭이 좁고 길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일차적으로 가장 위단에 담장을 쌓아 위로부터의 토사 흘림을 막고 있다. 이것도 예쁘다. ‘오래 살 수(壽)’자를 이용한 장식과 거북 등껍질 및 길상무늬를 반복한 미담이 무척이나 고와 보인다. 그 밑으로 여러 나무와 화초를 심고 하단에는 흙막이 사각석으로 마감해 뜰과 구분이 되도록 했다. 이 조그마한 정원은 본래의 지형을 자연스럽게 살린 것으로 두 그루의 소나무가 크게 성장하여 지붕 위로 뻗어 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동백헌의 정원이다. 완만한 경사가 보다 여유롭게 보인다. 그저 담장도 없이 수풀을 만들어 놓아 탁 튀인 개방감을 느끼게 한다. 단풍과 철쭉, 소나무, 담쟁이덩굴 등이 군락을 이루면 무성하게 자라 있다. 하단은 화강암을 이용해 2단 높이로 경계석을 세웠는데 그것이 구불구불 요철을 이루고 있어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답사를 마치고 숲을 거쳐 처음 들어오던 대문으로 향하던 중에 재

미있는 장승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부부가 있고 아이 2명에 할아버지가 있는 대가족 장승 군이었다. 사내 장승은 용이를 잘 활용하여 성기까지 만들어 두었으며 코 위에 있는 용이는 고집스러운 남성의 상징처럼 보인다. 그 옆에 따로 떨어져 있는 남자 아이는 아래 이빨이 서너 개 빠진 개구쟁이 남자 아이다. 코와 머리 부분이 땅가져 있어 아쉽우나, 아이의 천진스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반대편으로는 엄마 장승과 따님 장승이 나란히 서 있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 장승이 춤을 추고 계신다. 우리가 이 장승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은 염소수염이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자라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족 장승을 볼 수 있는 것은 삼청각 답사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제공받는 보너스라 할 수 있다. 

-
박진하는 성북동의 명소인 작은 식당 ‘디미방’을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요가와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우리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성북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성북동 사람이다.



성북동 마을여행 - 야생화 탐방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잡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글·사진 이파람

성북동천 사무실에서 우연히 그 단어를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몹시 설레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게 되는 그 이름 모를 풀들의 정체가 무척이나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햇살이 뜨겁게 쏟아지던 5월의 끝자락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안내받은 대로 성북동 쉼터에 도착했다. 성곽 아래 정자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초록초록 풀이 눈에 들어왔다. 전영문 선생님의 안내와 함께 우리의 여정도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보였던 노란 꽃은 얼핏 보면 작은 민들레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고들빼기였다. 씹싸름한 맛이 좋아 김치로 즐겨 먹는 고들빼기가 알고 보니 서울의 길가 어디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돌담의 작은 틈바구니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는 흔한 풀일 줄이야. 그 옆으로는 살철쭉이 늘어서 있었는데 살철쭉 꽃은 진달래와 비슷하게 생겨 혼동하기 쉽다. 하지만 진달래는 화전으로도 먹는 좋은 식재료인 반면, 살철쭉의 꽃에는 독성이 강하게 들어있어 먹으면 안 되니 잘 구별해야 한다. 풀이 가진 독은 우리가 풀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양은 그저 흔한 풀이지만 이름을 알고 보면 재밌는 풀이 많았다. 식물의 잎이나 줄기, 열매 등의 모양새를 보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발견한 지명이 따라 붙을 때도 있다. 생강나무처럼 향기로 구분하거나 예로부터 전해지던 전설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치천에 널린 노랑고 예쁜 꽃의 이름은 애기똥풀. 줄기를 뜯으면 그 부위에서 아주 진한 노란색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그 빛깔이 마치 애기의 똥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애기똥풀 역시 독성이 강해 먹을 수는 없지만, 사마귀가 난 곳에 노란 즙을 바르면 금방 낫는다고 한다. 계란꽃이라고도 불리는 개망초는 참으로 불운한 운명을 타고 났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에서 왔는데, 하필이면 그즈음 을사조약을 맺게 되어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망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거기다 앞에 ‘개’자가 붙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의 삶은 각박하구나 싶다. 그 열매가 꼭 쥐똥처럼 생겨 쥐똥나무라는 고약한 이름이 붙은 나무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하얗게 피어있는 꽃내음이 흠뻑 취할 만큼 향긋했다. 꽃이 달리는 부분이 비비꼬여 있어서 비비추, 뱀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난다고 하여 뱀딸기, 잘 익은 줄기를 따서 껍질을 벗겨 속살을 쭉 밀면 마치 국수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해서 국수나무까지. 때때로 잡초라고 천대받기도 하는 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마치 친구가 하나하나 느는 느낌이 들었다.

한양도성 성곽길로 가기 위해 언덕을 오르다 ‘북정마을’이라는 표지판 앞에 섰다. 이 곳 성북동은 옛날에 ‘마전터’였는데, 마전이란 대마를 양젖물에 삶아 표백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운을 떼신 디미방 박진하 선생님의 말씀에서 동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 이곳에서 일하던 아낙네들의 북적북적 이야기 소리가 언덕 위예까지 들렸다 하여 ‘북적마을’이 되었다가 지금의 ‘북정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성곽길에 다다르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다. 노란 꽃이 피었을 이 나무의 이름은 뭘까요? 담벼락 부근에서 둥그런 이파리만 무성한 키 작은 나무였는데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다. 정답은 개나리. 봄철이면 흔히 볼 수 있는 꽃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지고 나니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풀을 사계절 동안 지켜보아야만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쉽게 수긍할 수 있었다.

얼핏 보면 죄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나무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었다. 산책로 사이에 울타리로 심긴 빼죽하고 납작한 잎이 앞뒤로 똑같이 생긴 것은 측백나무이다. 반면에 잎의 뒷면에 하얀 줄이 있다면 편백나무. 신혼집 인테리어를 직접 하다 보니 피톤치드를 다량 내뿜어 가구재로 흔히 쓰이는 편백나무의 목재 단면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잎의 모양새는 몰랐기 때문에 참 흥미로웠다. 참나무에 대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도토리나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참나무의 열매를 총칭해서 도토리라고 부르는데, 가장 많은 신갈나무를 포함하여 갈참나무, 밤나무 등 참나무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잎을 살펴보면 모양새가 각기 달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나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소나무는 잎의 개수로 그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자생소나무는 잎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닷가에서 자라는 곰솔(해송)이 있다. 녹화사업으로 미국에서 건너온 리기다소나무는 잎이 3개이고, 잣나무는 5개의 잎을 가지고 있어서 오염송이라고도 부른다. 가는 길에 누군가가 여쭙 나무는 너무 멀리 있어 잎이나 열매로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수피에 있는 가로 줄무늬를 보고 뱃나무라고 알려주셨다.

성곽길을 따라 걸으면서 외국에서 들어와 아예 자리를 잡은 귀화식물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개망초, 서양 등골나무, 족제비싸리, 리기다소나무 등 등.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우리나라 자생나무가 있는데 굳이 외국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은 것은 왜일까? 외래종이 너무 많아져 우리나라 생태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 종종 뉴스거리가 되곤 하는데 나무도 피해갈 수가 없다. 언젠가 외래 식물은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빠른 성장속도 때문에 선호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로인해 토종이 설 자리를 잃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 고유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요즘 집 앞 작은 텃밭에서 토종씨앗을 키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물을 주고 햇빛을 잘 받도록 돕는 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식물로 인해 교잡이 되지 않게 꽃가루와 벌까지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토종식물을 키우려는 이유는 다음 사람, 다음 세대에 토종씨앗을 물려주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식물이 단순히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식물 하나를 키우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이후까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새하얗게 피어난, 이름도 예쁜 산딸나무를 끝으로 일일 야생화 탐방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세 시간 동안 성곽길을 슬렁슬렁 산책하고 관찰하면서 배움으로 머리를 채웠으니, 이후에는 비워낸 에너지를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과 이야기로 채울 차례였다. 아담하고 정갈한 식당 디미방에서 아욱국 등 잘 차려진 밥상에 둘러앉아 모두가 한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참여하는 모임이라 다소 걱정도 되었지만 동네 이웃이라는 느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들께 참 감사하다. 사계절 동안 하나의 풀을 관찰해야 그 풀에 대해 전부 알 수 있다는 말씀은 새기고 나니, 지금의 푸르른 모습이 가을에는 어떤 색깔과 향기로 바뀔지 무척 기대가 된다. 

-
이파람은 정릉동 주민이다. 성북동과의 인연은 몇 해 전 직장으로 맺어졌다. 퇴근길의 고즈넉한 성곽의 저녁과 부드러운 나무냄새를 좋아했다. 지금은 산과 가까운 곳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매 달 강원도로 자연농을 배우러 간다. 어떠한 풀과 곤충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미래의 자연농부이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꽃을 만들고, 그림을 그린다

신정화, DK

놀고 싶었다. 마냥, 계속, 그렇게. 그런데 또 혼자 놀기는 싫었다. 함께 놀 친구를 찾았고, 플로리스트와 일러스트레이터가 만났다. 함께 놀다보니 재밌었다. 계속 새로운 놀이를 찾으며 함께 놀다가, 또 알아서 각자의 놀이를 찾았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놀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놀이에만 집중 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했다. 동네 어귀 익숙한 길 냄새가 나는 곳, 어슬렁어슬렁 뒤흔치지 않는 곳, 뛰지 않고 걷기만 하는 고양이들이 있는 곳. 서울을 한 바퀴 돌고나니 성북동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람 사는 동네 같아 좋았다. 적당히 조용하고 적

당히 시끄러운 곳. 여기서 두 번째 놀이터를 열었다. 플로리스트 ‘정화’는 꽃으로 놀았고, 일러스트레이터 ‘DK’는 그림으로 놀았다.

놀이터의 이름은 ‘CHOCOLATE COSMOS’이다. ‘초콜릿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의 종류로 초콜릿 향이 나는 꽃이다. 즉, 초콜릿 집이 아닌 꽃집이다. 평범한 일상에 꽃은 이벤트고 특별함이다. 초콜릿처럼 달콤한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선택한 이름이다. ‘DK PLAYGROUND’는 말 그대로 ‘DK’의 놀이터다.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로 이용 중이다. 일은 지치고 지겹지만 놀이는 지치지도 지겹지도 않으니 하루하루 놀이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CHOCOLATE COSMOS’와 ‘DK PLAYGROUND’는 이렇게 한 공간을 함께 사용한다.

‘정화’는 꽃으로 놀았다. 꽃을 다듬고, 식물도 직접 심는 등 꽃놀이를 하다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예쁜 꽃들을 예쁘게 다듬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 하지만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새벽시장을 즐겨야 하고, 수천 종류의 꽃 중 어울리는 꽃을 골라야 한다.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 아가를 보살피듯 보듬어 주어야 한다. 시들지 않도록, 또 심심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말도 걸어준다.

‘DK’는 그림으로 놀았다.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하다보니 놀이터 안쪽에 자리 잡았다. 가끔 나의 꽃놀이에 동참하기도 하고, 꽃 사진도 찍지만,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하루 중 대부분을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줄 생각을 하며 두근거려한다.

그렇게 놀다보니 우리에게도 친구가 생겼다. 속속 거닐다 이쁘다며 들르는 친구, 힘들고 지칠 때 꽃이 보고 싶어 찾는 친구, 직접 만지고



또 만들어 보고 싶어 오는 친구, 한국에 들렀다가 2년만에 다시 찾아 오는 홍콩 친구... 꽃이 필요해서, 그림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갔다. 꽃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친구들과 노는 놀이이다. 친구들이 더 많아질수록 놀이는 즐거워진다. 꽃이 이쁘다는 말이나 그림 잘 그렸다는 칭찬도 좋다. 꽃과 그림을 보고 하루가, 아니 잠시 그 순간이 즐거워졌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의 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친구들이 계속 찾아 올 수 있도록 재밌는 놀이들로 이곳을 가득 채울 생각이다. 언제든 놀이가 필요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
신정화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10년 간 회사생활을 하며 열심히 판 짓을 했다. 그림, 도자기 등 이것저것 호기심 있는 것들을 접하는 중에 ‘꽃’을 만났고, 본격적으로 꽃을 만들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다. DK와 의기투합하여 ‘CHOCOLATE COSMOS’라는 꽃집 브랜드를 만들었다.

DK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그려왔던 그림이 좋아서 디자인 회사에 다녔고, 창업도 해봤다. 그러던 중 정화를 만나 함께 꽃집 브랜드를 하고 일러스트 작업실인 ‘DK PLAY GROUND’를 만들었다.

성북동 문화 아지트

벽 해는 밤

글·사진 최나현

성북동은 감정에 바람이 자주 이는 이에게 여러모로 좋은 동네다. 발끝만 보고 건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안내자 역할을 묵묵히 해주는 성곽길의 돌담이 있고, 몸을 숨겨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굽이굽이 마을길과 생각이 머물다가는 오래된 가옥, 외판 목과 맞닿아 있는 고갯마루, 침묵과 위안의 시간을 건네는 큰어른 길상사까지. 담이 높은 낮은 차별하지 않고 집집마다 하늘이 들어앉은 이 동네에서 나는 전시 프로젝트 [한벽한달]을 진행해오고 있다.

서시(序詩)

2010년 여름, 큐레이터가 주인공인 음악극을 준비하면서 나는 현장의 큐레이터 몇 분을 소개받아 인터뷰를 진행했고, 실제로 그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시작이 수월해서였을까, 대본이 중반부를 넘어서자 자력으로 글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 때면 책상앞을 떠나 한정 없이 건다가 발길 닿는 곳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한 선생님의 조언으로 미술관에서 꼬박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작품들 저마다 가진 매력이 다른 것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날의 나는 넓은 벽에 걸린 아주 작은 크기의 어떤 그림에 이끌려 그 앞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그날부터 근 한 달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그림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

한 작품 앞에 긴 시간 머물러 있는 게 지루하지 않을 수 있구나 했고, 구석에 마련된 자리에서 전시장 안의 여백을 바라보고 생각에 잠기는 날도 차츰 늘었다. 주어진 무대를 어떻게 채울까 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던 나를 향해 흰 벽과 흰 벽 사이의 빈 공간에서 사유의 바람이 불어왔다. 몰아치듯 다만 부끄럽게 완성된 극은 큰 탈 없이 무대에 올랐지만, 그 이후로 나는 어쩐지 다음 대본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었던 일이 어그러지며 느닷없이 백수가 된 2013년 여름에는, 길상사의 점심공양에 꽤 많은 신세를 졌다. 법정스님의 의자가 놓인 진영각으로 오르는 길가에 앉아 풀썽냄새에 몸을 숨기고 오가는 사람들을 보는 게 식후사(食後事)였고, 오후에는 절 아래 단골 찻집에서 주인의 외출을 거들며 대신 자리를 보는 것이 나머지 일과였다. 그러니 찻집의 빈 벽을 유심히 보게 된 것도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벽마다 흔한 명화 모작이라도 하나 걸려있을 법한데, 벽 한 쪽이 그저 텅 빈 자체로 하얗게 그 단아함을 뽐내고 있었다.

저 벽이 누군가에게 무대가 될 수 있다면, 그 누군가가 정말 ‘누구라도’ 된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 곳은 결국 내 무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용히 살자던 다짐과는 다르게 생각이 자꾸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었다. 찻집의 주인마저 기꺼운 마음으로 지지자가 되어준 덕에 이 프로젝트는 금세 [한벽한달]이라는 이름을 달 수 있었다.

벽 하나에 나 하나

벽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마주 선 사람과 말이 안 통해 답답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사람들을 만나 한벽



한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함께 벽 앞에 서면, 답답하기는커녕 특유의 담담함과 편안함에 이야기가 절로 풀렸다. 세상에, 벽으로 소통을 하게 될 줄이야!

볼펜으로만 반복된 그림 작업을 하신다는 분, 종이에 실로 꽃을 수놓는 분, 20대 시절을 채운 여행 사진을 갖고 온 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버튼(택지)을 주섬주섬 꺼내놓으며 이걸로도 전시를 할 수 있겠나던 분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여러 형태의 아트워크들이 바쁘지 않은 간격으로 모여 들었다. 이 작은 벽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는다는 게 신기하고, 또 그런 상황에 감사했다. 일상의 나를 잠시 벗어두고, 예술적 감성을 가진 나로 살 수 있는 한달이 생기는 것. 나만 알고 있었던 나를 텅 빈 벽에 그리는 것.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그 벽을 앞에 두고 함께 이야기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또 그 벽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는 재미있는 일이 생긴 것이다.

흰 바람벽이 있어

그 달의 전시 철수를 위해 작품을 거둬들이는 날이면 나는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를 떠올린다. 그림자가 드리웠던 시기에 나를 쉬게 했던 그의 시처럼, 이 벽도 작품을 건 사람에게나 보러온 사람에게 작은 ‘그 무엇’이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랬다. 백석 시인이 앞서 일렀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흰 바람벽에



있다고. 그들은 사실, 하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라서 이리도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것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인생은 적어도 한번은 쓸쓸하며, 가난은 모두의 고민이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도 생의 한 점을 꺼내들고 벽 앞으로 오셨으면 한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든, 공들여 만든 작품이든, 몇날 며칠을 밤새워 꾸꾸대며 쓴 잡문이든 좋다. 아니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것이 이미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누구든 보라고 벽에 거는 용기부터가 이미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누구든 시인이고 사진가며 화가이자 흰 바람벽이 되는 것이니까.

오늘밤에도 벽이 바람에 스치운다

성북동 동네공간의 한벽 귀퉁이에 이런 글이 적혀있다.

[한벽한달]은 창작집단미러의 월간전시프로젝트입니다. 한달 동안 벽 하나를 채우거나 비울 수 있습니다. 유무형의 아트워크를 통한 자

기표현을 지지합니다. 방황과 방랑 그 사이 어디쯤이어도 좋습니다.

방황하고 방랑하는 우리를 지지한다. 오늘밤에도 벽이 바람에 스치
운다. 窓

-

최나현은 경남 통영 출생. 대학 입학 이후로 2013년까지 정릉-길음-삼선-돈암을 거치
면서 성북주거투어를 지속하는가 싶었지만, 그만 월세에 밀려 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창작집단미러의 대표로 [한벽한달]과 [한벽극장] 프로젝트를
동네공간 및 17717과 함께 하고 있다. 전시 및 공연 기획 문의 enter.mirror@gmail.com

성북동 문화 아지트

예술과 공간 그리고 이상과 현실

김민진 글, 선병수 그림

30대에 접어들면서다. 나의 시선이 한옥이라는 공간에 머물던 시점
을 떠올려보면 말이다. 대부분 도시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지
만 나 역시도 시멘트 박스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다. 그런 공간
이 익숙했고 나쁘지 않았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무슨 대
수였을까.

한옥집과 같은 단독 구조 건물이나 집을 찾아 헤맸던 건 위아래 아
무도 없이 독립적인 공간을 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지금 있는
성북동, 서촌이나 북촌처럼 한옥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이 내가 찾는 곳 중 하나라고 여겼고 서촌을 거쳐 지금 성북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 집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압담함 그 자체였다. 해방 직
후 지어진 한옥이라고는 하지만 보존 상태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
이다. 흔히 허름한 집에서 볼 수 있는 여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비가 세는 것을 막고자 일단 덮기부터 한, 일명 갑바천(천
막천)을 시작으로, 단순 단열과 방 분리만을 위해 내부 겹겹이 덧방된
흔적 앞에서 한옥 구조의 장점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비전문가
인 내가 봐도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공간이었는데 더군다나 한정된 예
산을 보고 누가 이 집에 덤벼려고 할까. 예상대로 몇몇 인테리어 업체

들과 미팅을 했지만 모두 고개를 떨궜다. 우여곡절 끝에 한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시공자를 만나 직접 감리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덧방 되었던 구조물을 하나하나 뜯어 낼 때마다 숨어있던 서까래와 대들보가 서서히 드러났다. 신기함은 잠시 깊은 한숨과 탄식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인테리어로 시작했지만 거의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누구 말대로 이 집이 내 집도 아닌데 이게 잘하는 짓일까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 백 번 들었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이미 첫 삼은 뺐는데.

그렇게 버리는 것과 살리는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 끝에, 외부 벽체는 살리고, 지붕은 징크를 이용해 겉모습은 모던한 외관으로 정리하되 처마와 서까래는 내부에서 그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마치 캡슐 안에 한옥을 넣어놓은 형상의 공간이 되었다. 원래 중정이 있던 곳의 천정이 덮여 실내로 허가되어 사용했던 터라 공간 면적은 살리면서 원래 마당이었던 구조를 살려 외부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천창을 설치하였다. 덕분에 비가 오면 떨어지는 비를 보고 해가 뜨고 별이 뜨면 올려다볼 수 있는 중정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금의 아티온 아트살롱이 완성되었다.

아티온은 원래 서촌에서 아트스페이스로 시작한 공간이었다.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이고자 만들어진 곳이다. 이를 통해서 작게나마 대중과 예술, 대중과 아티스트의 두터운 벽을 조금을 좁혀보고 싶었다. 하지만 화이트 큐브의 벽은 기대만큼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았다.



조금은 더 머물 수 있는 공간, 대중과 예술이 조금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렇다고 흔히 갤러리 카페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진 않았다. 작품이 단순히 빈 벽면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갤러리 구조와 기능은 살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머물 수 있어야 했다. 예술 작품 감상에 방해 요소는 줄이고 손님들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과감히 테이블 수를 줄이고 구역을 나눴다.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만큼, 언젠가 누군가에게도 이곳이 익숙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티온 아트살롱은 아직 실험적인 공간이고 시간을 갖고 하나둘 채워가야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다. 

-
김민진은 아트 살롱 아티온의 창립자이자 기획자다. 돈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
p.s. 어쩌다 보니 또 한 번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역에 서 있다.

아트 살롱 아티온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7길 35
02-6080-4932 | www.theartion.com | facebook.com/theartion





주민 인터뷰 - 해동꽃농원 김은주 씨

야생화를 담은 성북동 꽃집 언니

김현주, 오예주

노루오줌, 패랭이꽃, 바늘꽃, 쑥부쟁이, 원추리, 도망국, 양지꽃, 금계국, 병꽃... 성북동 길을 걷다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꽃들을 마주하게 된다. 성북동길 가게들과 꽃을 나누며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주는 '성북동 꽃집 언니' 해동꽃농원 김은주 씨를 만나보자.

성북동에 언제부터 어떤 인연으로 살게 되었나요?

성북동으로 온 지는 14년 정도 되었어요. 성북동 인근인 서울과 학교 근처에서 남편이 총각 때 꽃집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대전에서 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 몇몇 동네를 거쳐 성북동에 자리 잡게 되었

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보았지만 꽃과 나무를 좋아했던 남편은 꽃집이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충남 서천에서 자랐는데 서울에서만 살았던 저는 시집가면서 방문한 시댁 마을에 꽃밭과 연못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풍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꽃과 나무를 보고 자란 것이 이렇게 직업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무뚝뚝한 남자이지만 꽃만 보면 연신 아름답다는 말을 내뱉는, 꽃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가게는 남편이 이 성북동 길을 한 달 이상 지켜보고 결정한 곳이에요. 지금은 아흔이 넘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성북동에서 이웃하며 살고 계세요.

성북동에 자리 잡으면서 이 마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나요?

성북동에 처음 왔을 때 느낌은 변화한 도시 속에 시골의 정겨움이 느껴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옛날 찻집, 작은 서점, 켈트 가게 등 작은 가게들과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죠.

성북동에서 지내면서 어떤 점들이 좋았나요?

처음에 성북동에서 꽃집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어요. 건강이 좋지 않기도 했고 신랑을 따라 시작한 일이라 꽃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여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이웃 분들이 울보라고 했었어요.(웃음) 옆 가게에서 슈퍼를 하셨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지금도 어머니처럼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 성북동에 자리 잡을 때부터 지켜보시며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셨죠.

처음에는 길거리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인도를 점유하는 거 아니냐는 민원도 들어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것보다 꽃이 없으면 허전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분들



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흙을 만지고 꽃을 다루면서 몸은 고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어요. 함께 꽃을 좋아해주는 이웃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서로 많이 이해해주고 응원해준 이웃들 덕분이에요.

이웃 가게와 함께 꽃을 나누시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네, 다들 좋으신 분들이예요. 흔쾌히 함께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영리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민 분들도 그렇고 산책하러 오는 외지인 분들도 길거리와 가게 앞마다 꽃이 있는걸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좋아하셔서 뿌듯해요.

쓰레기를 버리던 자리에 꽃을 한번 심어보자고 주민센터 직원과 같이 상의하고 재작년부터 무단투기지역을 꽃으로 가꾸기 시작했는데, 이후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꽃이 들어올 때마다 일로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꽃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보람도 되고 힘이 되는 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밤에도 오가다보면 길거리에 내놓은 꽃들을 보게 되는데, 보는 사람은 좋지만 불안하진 않나요?

물론 분실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꽃을 두긴 했어도, 주변 분들에게 새벽에 어떤 외제차가 화분들을 몇 판 쓸어가더라는 제보를 듣게 되거나 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이지만 씁쓸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죠. 그래도 초반에는 그렇게 분실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오래 하다 보니 이해해주시고 또 이웃 분들이 서로 봐주시기도 하시고 챙겨주시기도 하셔서인지 요즘은 분실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아요. 이제는 손님들도 가게에 제가 없을 때 꽃을 가져가게 되면 메도

해 두시고 다음날 다시 오시거나 새벽에 가져가시게 되면 돈을 문 밑으로 밀어놓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꽃집 손님 가운데 기억에 남는 단골 주민 분들이 계신가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꽃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다양해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만나게 되고 동네 사시는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도 많이 찾으시는데, 꽃을 대할 때만큼은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많이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우리 집은 이웃들이나 손님들이나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이런저런 세상사는 이야기들도 늘어놓는 사랑방 같다고들 하세요.

물론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분도 계신데, 꽃을 아주 좋아하시던 60대 초반 정도의 중년 신사였어요. 매년 봄마다 거르지 않고 항상 오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해는 오시지 않아 많이 궁금해 했어요. 이듬해 조금 야위신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일부러 저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었는데 그 이 후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었고, 봄 지나고 가을에 사모님을 통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미를 좋아하시는 엄마를 위해 본인 허리를 훌쩍 넘는 커다란 장미목을 사서 시골집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간다는, 기특한 젊은 여학생도 기억에 남아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뻐 덤으로 더 주기도 했어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드린다고 꽃을 사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성북동에 사는 젊은이들은 생각도 깊고 마음씨도 고운 것 같아요.(웃음)

주로 다루시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른 꽃집과는 달리 나무와 야생화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들꽃을 좋아해서 많이 가져다 놓는데 처음에는 이름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워낙 종류가 많아 사실 모르는 것도 많아요.(웃음) 자연스럽게 주변과 잘 어울리는 그런 들꽃들을 좋아해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꽃을 피우는 게 기특하고 예쁘잖아요. 여기 이 터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정원에 온 느낌처럼 편안해요. 정돈되고 인위적인 것보다 꾸미지 않아도 잘 어우러지고, 그래서 저희 가게도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자유롭게 드나드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꽃이나 요즘 5~6월에 추천해주실

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수국을 좋아해요. 꽃말이 외로운 꽃이라 하는데 수국이 좋고, 코스모스도 좋아해요. 연애할 적에 남편과 장흥에서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꽃길을 걷은 적이 있는데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 6월 초에 추천할만한 꽃은 ‘바늘꽃’이라는 야생화인데 이 시기에 들판에 하늘하늘 피는 것이 무척 아름다운 꽃이에요.

꽃구경은 안 가시나요?

처음에는 바람 쐬러 나가고 싶고 그랬는데 여기가 공기도 좋잖아요. 꽃도 많고 여기 있는 것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제는 나가면 오히려 피곤하기도 하고 꽃을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요.

꽃집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을 나서요. 남편도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도 꼭 본인이 밤마다 화분에 물을

줘요. 그 시간이 꽃을 좋아하는 그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 없이 매일 가게를 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더 휴식 시간이기도 해요. 사람들도 만나고 즐겁고 여기가 더 편안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성북동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민들이 나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도심처럼 빌딩들이 들어서고 개발이 된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성북동에는 한옥도 많고, 개발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정겨운 원래 있던 정취를 잘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주는 본지 편집위원이다. 성북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성북동 한 모퉁이에 터 잡고 살아가는 주민이기도 하다. 성북동이 성북동다움을 간직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성북동 사람이다.

오예주는 본지 편집위원으로, 창간호부터 편집위원으로 참여해왔다. 성북동에 살기도 했고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성북동이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로 남기를 바라는 성북동 사람이다. 지금은 성북동에 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꿈꾸고 있다.



주민 기고

28세 성북동 주민 오창민 씨의 세 번째 누리마실

오창민

2016년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 끝났다. 2013년 나의 첫 누리마실에서부터 2016년 나의 세 번째 누리마실까지, 이 축제는 나에게 있어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2013 성북문화재단 인턴, 첫 번째 누리마실

누리마실과 나의 첫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나는 강남구에 살았는데, 4월에 성북문화재단 인턴으로 채용되고 성북구로 와서 맨 처음 배정 받은 업무가

바로 누리마실이었다. 첫 직장인데다 성북구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그냥 인터넷 홍보랑 동네에 포스터 붙이는 일 정도였다.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누리마실 기획 회의에서 축제 사회자로 수지나 아이유냐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으나 예산 안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에피소드다. (결국 사회자로 최종 섭외됐던 사람은 진짜 사나이로 주가가 올라가기 전의 샘 해밍턴이었다.) 어쨌건, 그해 누리마실 행사 당일 내가 맡게 된 업무는 주차 관리였는데, 사람들의 무개념 주차로 하루 종일 고통 받았다. 어떤 분은 주차를 해 놓고 북한산 등반을 가시는 바람에, 행사가 끝나고도 세 시간이 넘게 나타나지 않아 마지막까지 나를 힘들게 하였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첫 누리마실에 대한 기억에 그리 특별할 것이라고는 없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축제의 모든 마무리가 끝나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축제 뒷풀이로 근처 막걸리 집에 가게 되었다. 당시 술을 배운지 얼마 안 되었던 나는, 막걸리가 어떤 술인지도 모르고 맛있다면 별척별척 들이켰고, 만취한 상태로 강남행 마지막 버스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한 공원 벤치에서 누워 자던 나를 경찰이 발견한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또 거기가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5월 말이라 많이 춥지 않았고 때마침 순찰을 돌던 경찰이 나를 발견해주었으니 망정이지, 큰일 치를 뻔했다.

그 길로 나는 바로 성북구에 있는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6월 초에 바로 동선동에 위치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이렇게 성북구의 주민이 되었다.

2015 협동조합 성북신나, 두 번째 누리마실

그 이후부터 2015년 두 번째 누리마실 참가 이전까지 나에게는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성북문화재단 인턴 기간이 끝나고 함께 인턴을 했던 10명의 동료들이 모여 2014년 2월 협동조합 성북신나를 창립한 것이다.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건강한 청년일자리 생태계 만들기'라는 미션으로 지역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교육, 미디어,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갔다. 집도, 처음의 원룸을 떠나 현재 살고 있는 성북동의 투룸 빌라로 이사를 했다. 본격적인 성북살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첫 해와는 달리 내가 어엿한 성북 지역의 일원으로 누리마실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2015년에는 협동조합 성북신나의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누리마실 배지를 만드는 체험부스를 열었다. 내 집 앞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되다 보니 당일 날에도 별 부담 없이 언덕을 따라 쓰윽 내려오기만 하면 되었고, 행사가 끝난 뒤에도 여유 있게 뒷풀이까지 마친 뒤 다시 쓰윽 집에 걸어 올라가면 되는 편안함이 있었다. 어릴 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렸던 야시장을 구경하듯이 말이다. 느긋하게 축제 구경을 하다 보면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 일상적 풍경과 다른 동네의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어, 동네축제의 특별함이 배가 된다.

2016 성북청년회, 세 번째 누리마실

그리고 올해로 세 번째 누리마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5년에 5만 명이 넘게 몰려든 방문객으로 인해 음식 부스의 수입이 꽤 짭짤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올해는 음식 부스로 참여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2014년 말부터 지역 안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



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성북청년회'라는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공동기금도 마련하고 다 함께 특별한 경험도 할 겸, 힘을 모아 음식부스를 준비해보기로 했다. 세계 맥주 축제도 함께 진행된다기에, 감자튀김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한 멤버의 조언으로 우리의 주메뉴는 칠리 나초와 소시지로 결정이 되었다. 난생 처음 코스트코에 가서 장도 보고, 계산기로 예상 수익도 두드려보며 나름 재미있게 준비했던 것 같다. 칠리 나초는 결국 좀 남았지만 준비해갔던 소시지는 마감 전에 다 팔았다. 정산을 마치고 나니 꿈꾸었던 것만큼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고생한 보람값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다. 이날 벌어들인 수익은 지역에서 모두 술과 음식으로 탕진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로 멤버들 간에 합의를 보았다.

장사하느라 축제 구경은 거의 못했지만 3년 전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외지인 혹은 주변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인사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졌고, 이제는 확실히 성북동이 '우리 동네'처럼 느껴진다. 더불어

축제 자체도 예년보다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다. 지역 안에서 축제와 내가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내년 축제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온전히 축제를 즐겨 볼 계획이다. 집에서 빈둥거리다 슬리퍼 끌고 내려와 음식도 사 먹고, 공연도 구경하고, 체험 부스도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 살아가는데 있어 기다려지는 하루가 있다는 건 그리 나쁘지 않은 삶인 것 같다. 

사진제공 : 누리마실친구들

-

오창민은 4년차 성북동 주민이다. 참나무 닭나라 라인의 야경 좋은 언덕배기 빌라에 살고 있다. 지역을 신나게 하는 작은 연구소, 협동조합 성북신나에서 일하고 있다. 동네에서 맥주 마시며 노닥거리는 것을 좋아하며, 단골집은 성북동 꿀맛식당과 삼선동 sub이다.



[특집] 대학과 지역사회의 만남

약속을 짚어 드립니다 - 우리동內 사진관

이현정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대학교 생활이 벌써 4년째, 최대학점을 꽉 채워서 매 학기를 보내다가 올해는 12학점이라는 다소 적은(?)학점으로 학기를 시작하니 좋기도, 씁쓸하기도 한 마음이었다. 몇 개 되지 않는 수업 중, 대학생 4학년 마지막 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수업은 '문화산업비즈니스'라는 전공과목이다. 강의 소개를 들을 때는 이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그냥 마을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성북동' 답사를 다녀오고 난 뒤부터 내 생각은 조금 달라졌다. 성북동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동네라고 하기에는,

뭘탈까 좀 더 정겨웠다고 해야 할까? ‘예스러운 공간의 멋’이 느껴지는 그런 동네였다. 우리는 그런 성북동이라는 지역을 잘 활용해보고 싶었고, 그리하여 기획하게 된 것이 ‘리마인드 웨딩사진’ 사업이었다.

언젠가 왜 엄마는 결혼사진을 보여주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엄마는 하도 옛날에 찍어서 화장도 옷도 촌스러워 꺼내보기 싫다고 하셨다. 이때부터 나는 부모님의 결혼 30주년에는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뜬금없이 지역과 리마인드 웨딩사진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사업의 목표를 찾았다.

‘약속을 찍어드립니다’는 우리 동네, 그리고 추억의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우리가 살아온 동네는 화려하거나 세련되진 않지만 자신의 반려자 또는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다. 함께 한 시간과 추억이 깃든 의미 있는 장소와 공간에서 사진기 앞에 선 부부는 서로를 향해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게 된다. 부부의 사진 마지막 컷은 서로의 약속 사진으로 장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약속일지는 우리들은 모르지만 손을 건 두 분에게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자 앞으로의 행복한 나날을 위한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 사업은 기획할 때부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잡았다.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았고 이제 더 이상의 산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대학생의 큰 착각이었다.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과정은 그야말로 더 크고 험준한 산이었다. 사진 촬영을 하는데 필요한 소품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진작가 섭외, 참여 부부 섭외까

지 난생 처음해보는 것들뿐이었지만, 다행히 이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 매니저님의 협력과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다. 며칠 전에는 드디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참여 부부와 만남이 있었다.

우리 사업의 첫 번째 모델이 되어주신 분들은 ‘성북동천’의 회원 중 한 분이셨다. 우리는 사진 속에 부부의 스토리를 담기 위해 촬영 전에 사전 미팅을 진행했다. 대학생들이 좋은 뜻을 갖고 이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흔쾌히 승낙해주신 두 분은 예상대로 너무 따뜻하고 인자하셨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간단히 우리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한 뒤, 준비해 간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부는 올해로 결혼 30주년을 맞는다고 말씀하셨다. 첫 만남은, 어찌 보면 식상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정말 드라마 같았다. 부산의 한 다방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다른 사람과 서로 선을 보다 중매를 해주신 할머니에 의해 맞선 상대가 바뀌었고 그것이 두 분의 인연으로 연결되었다고 하셨다. 이야기를 꺼내는 처음에는 잠시 쑥스러워 하시던 아버님과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옛 추억에 젖어 상기되었고,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자연스레 두 분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인터뷰 말미에 아버님은 우리를 보며 어머니과 결혼을 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었고 채 한 줄도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고마움과 사랑이 느껴지는 결코 짧지 않은 한 마디였다. 멋진 남편을 둔 어머니가 부럽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서 잠시 먹먹했던 순간이었다. 그렇게 인터뷰는 잘 마무리 되었고, 촬영일은 6월 4일 토요일로 정해졌다.

당일 아침, 촬영을 하러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날씨 걱정부





터 시작해 의상은 잘 어울릴지, 소품과의 조화는 자연스러울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 줄지에 대한 걱정까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때까지 했던 모든 걱정들은 사라졌다. 아버님과 어머니는 전문 모델들 못지않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복한 표정으로 매순간을 즐기셨다. 얼마나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던지 촬영은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일찍 끝이 났다.

점심을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은 두 분의 사진 촬영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아버님은 우리와의 20년 뒤 재촬영을 기약하자는 농담과 함께 우리의 사업을 지지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주셨다. 어머니는 솔직하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촬영을 해보니 30년 결혼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다. 형식적인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님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우리의 지난 3개월의 노력에 대한 격려를 받은 기분이었다. 집에 가는 길 팀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팀원들도 그 순간 나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우리의 작은 생각이 모여 작은 계기가 되고, 그 계기가 작은 실천이 되어 누군가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끝으로 우리들의 사업이, 참여하는 부부나 준비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이기에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이런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이제는 나의 대학시절 기억 중 큰 부분을 차지해버린 성북동. 이번 학기는 4학년의 종강이라 특별했고, 성북동과 함께여서 더 특별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이 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
이현정은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학과 4학년 학생이다. 같은 과 학우 이윤지, 서혜린과 함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성북동 주민공동체 성북동천과 협업하여 '성북동 리마인드 웨딩'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동네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소회를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에 기고하였다.

※ '성북동 리마인드 웨딩'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성북동 주민공동체 성북동천과 문화공간 17717이 코디네이터로 결합하여 진행되었으며, 사진작가 박주리(@jooorish), 헤어 및 메이크업 이성미(@artitmi), 의상디자인 로드한복엔 김예은(@road_yen), 소품 초콜릿 코스모스에서 협찬해주셨습니다.

보리소골에서의 춘야 소회

성북동천 회원들 최 시인의 고향, 강원 안흥에 가다

박진하 글, 김철우 그림

성북동 마을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최성수 시인은 몇 년 전부터 그의 고향, '강원 안흥'에 집을 짓고 자리 잡고 있었다. 드디어는 주소지마저도 그곳으로 옮겨 그 마을의 청년회원이 되었다. 산촌에서는 세월이 거꾸로 되돌아가는지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한 사람도 청년회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한다. 이렇게 회춘하신 젊은 청춘, 최 시인께서 편집위원들을 집으로 초청하였다.

때는 6월 5일, 일요일 밤이다. 저녁 9시에 식당영업을 마치고 출발했다. 일행은 우리 부부와 전 박사, 이상 3명이었다. 밤늦은 시간이라 차량 정체도 거의 없었다. 호법을 지나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니 차량이 다소 많아진다. 드디어 강원도 안흥에 도착했다. 도로 폭은 좁아지고 내비게이션은 도착지에 도착했다고 알려 준다. 그러나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 최 선생께 전화를 드렸더니 좌측으로 오다가 그리고 우회전하여 오면 된다고 한다. 밖은 어둡고 밤은 깊었다. 벌써 자정이 넘었던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가다 보면 아무리 봐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결국에는 처음 위치로 돌아왔고 마중 나온 차량의 안내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오는 도중에 보리소골이라는 마을 표지석이 보인다. 면사무소에서 아름다운 동네 명을 보리수골로 개명하려 했단다. 그들은 보리수

라는 나무 명에서 이 이름이 유래되었다 생각하고 바꾸려 했던 것이다. 사실 보리와 물이 많은 동네라 하여 보리소골이라 불렀던 것이란다. 이튿 날 나올 때보니 소금소골이라는 예쁜 이름도 보인다.

먼저 도착해 일찍이 자리를 시작했던 사람들까지, 드디어 성원이 되었다. 거실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침실을 배치한 최 시인의 집에는 책으로 가득하다. 대부분의 책들이 문학서적들이었지만 다른 전문 서적도 많이 꽂혀 있어 그의 문학적 깊이가 느껴졌다. 기다리던 봄날의 저녁 회식(춘야 소회, 春夜 小會)시간이 되었다. 겨우 술 몇 병만 가지고 온 우리를 맞이한 것은 자연 밥상이다. 두릅으로 만든 것만도 3가지 종류이다. 시원한 두릅김치, 그리고 절임으로 만든 것 등이 담백하고 맛깔스럽다. 그 지방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와 찜도 있었다. 상추는 큰 얼굴을 덮을 만큼 크다. 음식을 장만한 것을 차려 내어 놓고 고기를 구워내느라 가장 바쁘신 분은 안주인이다.

구운 돼지고기 한 점을 상추에 올려놓고 두릅 절임을 곁들인다. 입을 한껏 벌려 찜을 먹으면 강원의 진미가 입 속에 가득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빈 막걸리 병은 쌓여가고 우리의 이야기는 깊어만 간다. 하루의 피로가 쌓여 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앉아서 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김 대표와 총무는 벌써 출발했다 한다. 긴 연휴 끝이라 차량 정체가 심할까봐 일찍 출발했다한다. 나중에 들으니 초고속으로 달려 최단시간에 귀경할 수 있었다.

우린 최 시인의 문학적인 원천인 고향 길 산책으로 아침일정을 시작했다. 집 앞 왼편으로 함박꽃이, 오른쪽으로는 장미꽃이 피어있다. 골짜기를 따라 오르니 산책길이 잘 정돈되어 있다. 왼쪽 산길을 따라 오른다. 그 반대편으로는 커다란 무밭이 펼쳐진다.



安興公司
十六日
安興公司
十六日

돌아오니 어젯밤에 먹던 소시지와 여러 재료를 넣어 만든 김치찌개가 기다린다. 콩을 비롯한 여러 것을 넣은 잡곡밥은 다른 반찬과 썩 잘 어울린다. 이어 나온 것은 최 선생께서 직접 갈고 내린 커피였다. 다들 한 잔씩 들고 집 앞 베란다로 나간다. 검정색 비닐 천으로 씌운 루프를 쳐 그늘 막을 만들고 그 밑으로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었다. 집 앞 전경이 그만이다. 도로보다 다소 높게 조성된 둔덕 건너편 밭 뒤로 낙엽송이 식재된 앞산이 보인다. 커다란 군락을 이룬 숲이 바람결에 따라 춤을 추듯 움직인다. 그리고 집 앞 가로수로 심어진 느티나무는 이사 올 때 심은 것이라 한다. 그때도 제법 컸지만 지금은 더위를 식혀 줄 만큼 큰 둥구나무가 되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바람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커피 한잔의 시간이 즐거웠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흘렀다.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 정오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서둘러 일어나 출발하려는데 지하수 원천지에 새겨진 한시 한수가 눈에 띈다. 집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은 지하 암반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란다. 그 시는 최 선생의 아버님이 쓰신 작품으로 “천도시(泉禱詩)”라는 제하에 이 물의 청량함과 이를 먹는 사람의 건강을 기원하는 글이었다.

아무리 바빠도 오던 날이 안성장이라니 시장 구경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었다. 오일장 규모가 제법 컸다. 강원도 특유의 올챙이국수도 있었으나 우리에게 친숙한 잔치국수로 먹고 시장 구경에 나섰다. 각종 산채 나물과 생선, 기타 토산품들이 우리의 눈길을 자극한다.

이젠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 되돌아오는 일정만 남았다.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가 문제이었다. 비탈진 경사로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결국에서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받고서야 해결되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아 차의 기능을 잊고 있었다.

두 번이나 도움을 청한 후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오는 길에서는 가끔 정체되어 느리게도 또는 시원하게 달려 갈 수도 있었다. 다소 차량 속도가 늦어지면 주변 경치를 보아가면서 서울로 돌아 올 수 있었다. 도착해 보니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니다.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었다. 좋은 장소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

-

박진하는 성북동의 명소인 작은 식당 ‘디미방’을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요가와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우리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성북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성북동 사람이다.

김철우는 화가이며 ‘성북동천’ 대표이다.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마을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공간이기를 꿈꾸는 사람이다.



책 소개 & 서평

거인소년 모래 이야기

이민우

『거인소년 모래 이야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에서 혼자 즐겁게 살던 거인소년 ‘모래’가 어느 날 사막을 떠나 숲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이야기이다.

내일은 아니더라도 다가올 어느 날의 모래에는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글과 그림으로 전달하며, 시각적으로도 그림과 글이 다정다감하게 상응하고, 독자에게 편안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서체까지도 하나하나 다듬으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다. 책에 쓰인 글꼴은 산돌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

인 ‘구모아’씨가 직접 작업한 ‘늦봄체’로써, 이 글꼴을 개발한 디자이너가 책의 편집디자인까지 담당하여 글꼴과 그림의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따뜻한 배려가 숨어있다.

『거인소년 모래 이야기』는 우리말뿐만이 아니라 올해 안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웨덴어 등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각각의 언어들은 작가의 친구들이 담당하여, 각자의 모국어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담담한 어투로 번역된다.

단 한 장의 그림을 마주하더라도 지친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건네는 그림책 『거인소년 모래 이야기』는 여러 사람의 바람을 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어 꽃피워주자는 취지로 설립한 바람꽃 출판사의 첫 번째 책으로 출간되었다.

출판사 서평

■ 3년의 시간이 담긴 섬세한 단색 볼펜선에서 만나는 치유의 그림들
『거인소년 모래 이야기』에는 거대한 이야기 구조보다는 소년의 여정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조용한 낭독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볼펜으로 그려진 매 페이지의 그림들은 각각 그 장면이 보여주고자 하는 감정에 충실하다. 작가가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삼 일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을 넘겼던 시간의 흔적이 있는 그림들을 조용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삼 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책에서 배어 나온다.

단색의 선들을 그려나가면서 작가가 자신을 치유하고, 미래를 살아갈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격려들을 담으려고 한 흔적이 곳곳에 숨어있다. 정말 색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선으로

만 그려진 이 그림 속에서 독자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작가와 편집자는 그렇다고 믿는다.

화려하지 않은 수많은 세세한 선들을 통해서 작가는 장면의 모습을 사
진처럼 담기보다는, 장면의 이면에 숨어있는 감정을 끌어내고 있으니까.

■ 우리는 꼭 오늘 행복해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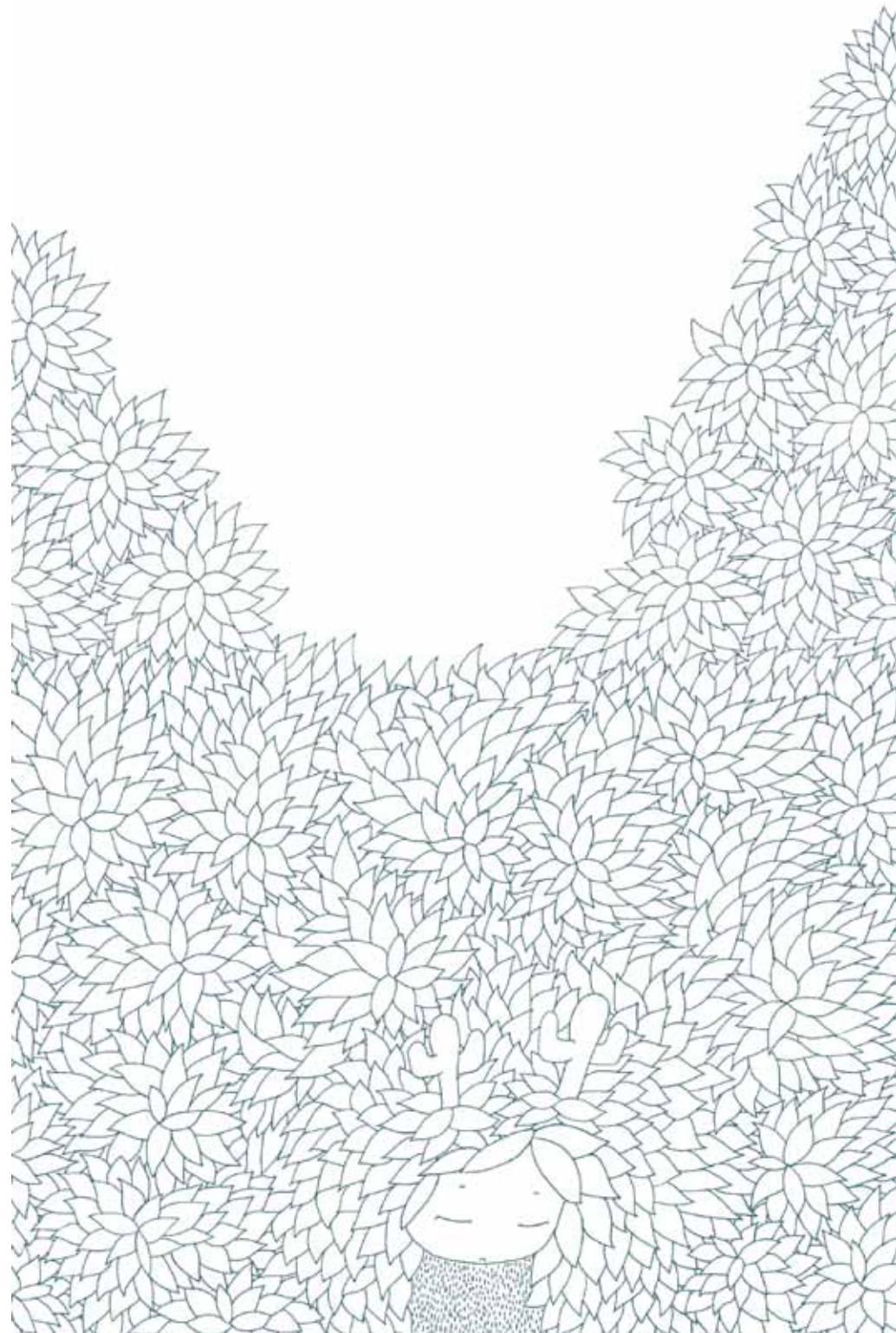
『거인소년 모레 이야기』는 ‘모레’ 위에서 살아가는 소년 ‘모레’에 관
한 이야기이다. 모레 위에서 살아가는 평화로운 일상을 벗어 던지고,
‘숲’이라는 새로운 모험의 공간으로 향하는 소년의 여정은 우리의 삶
과 닮아있다.

‘행복은 오늘 당장 꼭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작가의 여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가는 모레 위에서 평화롭게 살아
가는 소년 ‘모레’가 새로운 세상을 찾아 여행을 떠나도록 한다. 작가
는 소년이 여정을 통해서 행복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모레에는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실마리들이 이미
우리 속에 있음을 작은 씨앗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또한, 열려있는 책의 결말을 통해서 작가는 더 많은 이야기가 독자
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정말 우리는 꼭 오늘 행복해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책은 대답한다.

꼭 오늘이거나 내일이 아니더라도, 모레나 그 어느 날의 모레에는
분명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러니 오늘 손에 쥐지 못한 행복 때문에 아
쉬워하며 슬퍼할 필요도 없다고.



■ 책장을 넘길 때마다 성장하는 이야기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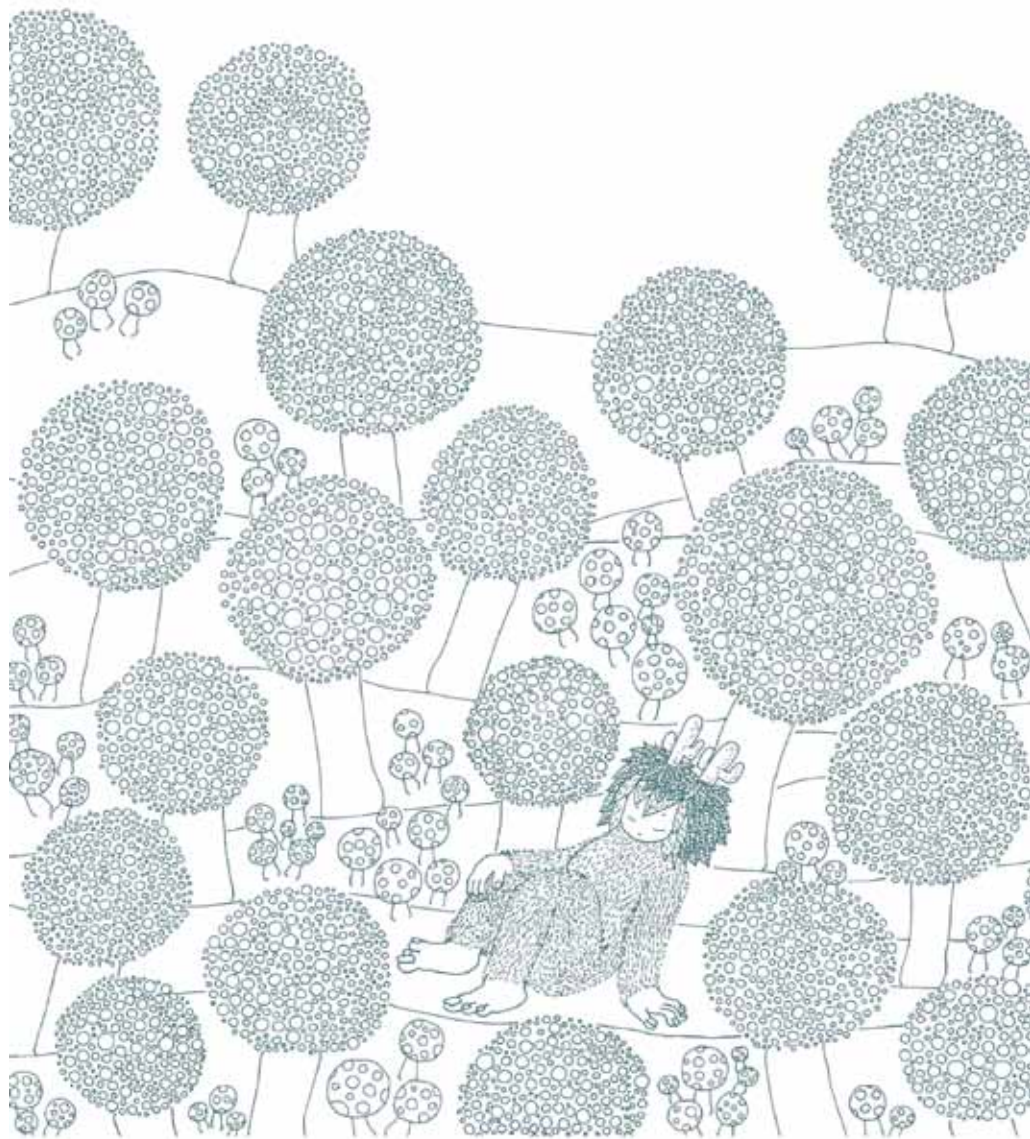
책의 그림들은 작가가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작업한 그림들이다. 책장을 넘기는 순서에 따라 작가가 그렸던 그림의 시간도 변하고 있다. 그래서 첫 장의 그림과 마지막 장의 그림 사이에는 작가의 시간을 느낄 만큼의 볼펜선의 변화가 있다. 투박하고 장난스러운 그림으로 시작된 전반부와 더 세밀하고 밀도 높은 후반부의 그림들은 서로 시간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간과 그림체의 변화는 단순히 그림의 변화만은 아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단 한 명의 등장인물인 소년 ‘모레’의 여정의 시간이자 내면의 변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책장을 넘겨야 한다. 시간의 변화를 느끼며, 사막의 바람소리, 숲의 빗소리, 고요한 숲에서 달이 내는 웅웅 고막을 흔드는 작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 소년의 시간을 느끼고 작가의 시간을 느낄 때 우리는 책을 덮으며 담담하지만 울림이 깊은 감동을 느낀다.

작가 프로필 및 소개

평범한 아저씨가 3년 동안 자신의 아이를 위해 볼펜과 A4 종이만으로 작업한 동화책이 5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북동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이 동화책은 2015년 여름 문화기획자 김선문이 편집자로 참여하고, 그해 가을 산돌 커뮤니케이션의 글꼴 디자이너인 구모아가 더해졌습니다.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가 함께하는 『거인소년 모레 이야기』 프로젝트는 이야기가 보여줄 수 있는 확장성과 디자인에 관한 시도를 전문 출판인이 아닌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의 세 사람이 모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소년 모레 이야기』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첫 이야기가 ‘모레’라는 소년이 첫 번째 여행을 통해 자기를 발견해 가는 이야기라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사막으로 되돌아간 소년이 자신과 세상을 이어주는 매듭을 내면의 성찰을 통해 발견하는 이야기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성북동 주민공동체 '성북동천'과 함께 할,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성북동천’은 성북동 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법인·단체, 비영리조직, 전문가 및 예술인들이 모여 설립한 모임으로,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간행, 마을탐방 진행,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획, 지역 내 공론의 장 마련 등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 간 연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 주민을 중심으로 17717, 동네공간, 스페이스오뉴월,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희망제작소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천’은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간행과 마을탐방, 문화·예술 행사 또는 주민 맞춤형 배움 프로그램 기획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성북동 거주자나 생활권자, 혹은 성북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성북동천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실 곳 | 전자우편 seongbukdong.town@gmail.com

전화 070-8871-5998

(건축그룹[tam]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전화이므로 통화 시 ‘성북동천’에 연락한 것임을 말씀해주시야 합니다. 문자 수신 가능한 인터넷 전화입니다.)

회비 및 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 |

우리은행 1006-901-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마지막 이후의 잡지를 펴내며

편집부

6호 편집위원님들은 지난 6호가 마지막인 줄 알았다고 한다. 잡지 간행은 3년차가 맞지만, 서울마을미디어 활성화 주민지원사업과 연을 맺은 것은 작년이 2년차였으므로 올해도 지원 자격은 주어졌고,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7, 8호 간행사업이 선정되었다. 덕분에 지난 6호 편집 후기의 끝인사는 허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허언이라서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이 비단 우리 편집위원회나 성북동천 회원님들만은 아닐 것이라 굳게 믿는다.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에도 우리 잡지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지, 잡지를 만들어낸 세월은 켜켜이 쌓여 가면서 다음에 대한 기회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점점 커져만 가는데 다음을 기약하고 함께 할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을지 늘 고민이고 또 걱정이다. 그것을 덮어버리는 현안 업무에 밀려서 잊어버리기 일쑤지만 잠시 한숨 돌릴 때면 어김없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파리를 틀고 있던 그 불안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곤 한다. 우린 늘 사람이 그림고 사람이 고프다.

동네에서 잡지를 만든다는 건, 이웃과 함께 돈, 명예, 권력 그 어떤 것과도 무관한 비영리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건,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생소하고 낯설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노력을 냉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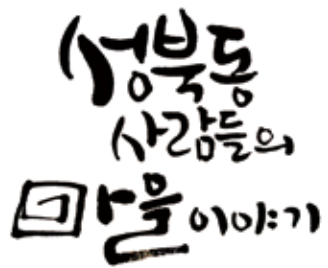
있다. 거대 담론 못지않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견한 소소하고 하찮
것 없는 것들이 지닌 가치를,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책자로 찍
어내어 돌려 읽는 행위가 뜻하는 바를 우리는 확신한다. 이 잡지가 세
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잡지를 만든 우리의 삶은 변화시
켰다. 그리고 이 잡지를 읽은 분들의 삶이 조금은 더 따뜻해졌기를 소
망한다.

우리는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할 것이다. 그리
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처음 펴냈을 때의 마음이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결심이다. ㉠

星霜荏苒誰能畫

기나긴 세월 그 누가 그려낼소냐

Who can depict the long years?;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7호 <비매품>

2016년 7월 11일 발행

편집 |
김기민 김현주 김혜진 김홍식 김철우
박진하 오예주 장영철 최성수 홍정근

디자인·사진 | 김선문

펴낸곳 | 성북동천
후원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동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12-6, 1층 동네공간
seongbukdong.town@gmail.com
070. 8871. 5998